



제31주기 멸도절 효강 종령 법어

오늘은 한국불교의 대표종단, 총지중을 창종하신 원정 대성사님께서 열반에 드신지 3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불공과 교화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종조님의 열반추진법회에 동참해 주신 여러 스승님들과 교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 정제(淨戒)를 귀중히 여기신 점은 큰 가르침으로 남습니다. 정제는 청정도량으로 가는 길이고, 지계(持戒)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단의 재단법인화를 들 수 있습니다. 정제이므로 더욱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교도들과 함께 항상 의논하셨다는 점은 종단의 민주화를 숭수수법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원정 대성사께서는 정통불교의 법맥을 이 땅에 다시 잇고 즉신성불의 대도(大道)를 열어 고통에 허덕이고 무명에 가려진 일체 중생들을 모두 건져내시겠다는 커다란 발원으로 40년 전 총지중을 창종하셨습니다.

그동안 승단과 교도들이 원정 종조님의 중생구제와 불국정토의 건설이라는 대원력을 계승하여 정진과 수행으로써 오늘의 총지중을 이끌어 왔습니다. 오늘 종조님의 열반일을 기리면서 종조님의 입교개종의 정신을 되새겨 보는 것이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조님께서 한국불교종단 '불교충지중'을 창종하시면서 입교개종(立教開宗)의 정신을 다음과 같이 설교하셨습니다.

『삼십과 육행을 수행의 덕목으로 하고 당상즉도(當相即道) 색심불이(色心不二)의 원리에 입각하여 복지쌍수(福智雙修)로 사리(事理)를 구현함으로써 현세정화(現世淨化)와 즉신성불(即身成佛)의 윤원대도(輪圓大道)를 얻게 하고, 단순했던 과거와 복잡한 현대에 제생의세(濟生濟世)하는 법이 다르므로, 특히 이원진리(二元眞理)를 밝혀 물심병진법(物心並進法)을 가르치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시시불공(時時佛供) 처처불공(處處佛供)의 실천법으로써 생활시불법(生活是佛法) 불법시생활(佛法是生活)의 진리를 체득케 하는 동시에 활동하며 닦고, 닦으면서 활동하는 것을 실천하게 하는 방편을 세움으로써 교상(敎相)과 사상(事相)이 확립되는고로 입교교의(立敎敎義)를 이에 두었다.』고 만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이와같이 종조님께서 '시시불공(時時佛供) 처처불공(處處佛供), 생활시불법(生活是佛法) 불법시생활(佛法是生活)'을 교상으로 삼으시어 이미 40여년 전에 '생활불교'를 주창하셨습니다. 종조님의 예지(叡智)와 위대한 수행 기품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생활불교, 불교의 현대화를 지표로 삼으신 종조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선도하는 불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품성이 영특하시고, 고매하신 어른이었습니다. 문장력이 뛰어난 천재성과 기지를 지니셨고, 참종 당시에 이미 모든 것을 일구신 선각자이었습니다.

오늘날, 종조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과 불교의 수승한 수행법은 감격과 감탄을

초월주야 불공정진에 매진하신 것은 오늘 우리의게도 큰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종조님의 정진 수행과 함께 철저한 계율 정신은 청정승단, 청정도량으로 거듭 날 것을 역설하신 것이며, 그 뜻을 우리는 마음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31주년 종조멸도절을 맞이하여 추선불사를 올리는 의미는 불퇴전의 정신으로 기어 이 종단 흥흥을 이루겠다는 위대한 목표를 세워 온 종도가 하나가 되어 매진할 것이며, 그 성취를 위하여 우리는 새종풍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나갈 각오를 다지는 데 있습니다. 그 길은 새로운 종풍운동의 다섯가지 지침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웅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십관행을 실천해 나갑시다.

둘째, 정제(淨戒)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시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흥포(弘布)합시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熱)과 성(誠)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시다.

이 다섯 지침을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실천하는 데 몸과 마음을 바칩시다. 그리하여 만천하에 우뚝 선 우리 총지중을 건설합시다.

이것이 불은(佛恩)과 종조님의 은혜에 보은(報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길은 우리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닦아서 정신을 맑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가꾸어 나가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법회가 바로 그 법석의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 종도, 그리고 오늘 법회에 동참하신 승단의 스승님과 교도 보살님, 각자님들의 수행과 정진에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 광명과 더불어 가지력이 원만구족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훤, 옴마니반메훤, 옴마니반메훤.

총기 40년 9월 8일 불교충지중 종령 효강 합창



가을 들녘에 코스모스 물결치고...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렸던 여름은 서서히 물러가고, 우주 법계의 이치는 그대로 돌아 가을의 문턱에 서있습니다. 가을의 풍성함과 한가위의 즐거움이 함께 하시길 서원 합니다.

원정대성사 열반 제31주기 멸도절 추선불사

9월 8일 전국 사원에서 봉행 예정

원정대성사 열반 제31주기 멸도절 추선불사가 오는 9월 8일 전국 사원에서 봉행된다.

이번 추선불사는 현화 및 훈향정공, 추선사, 종조 육성법문, 창교가 제장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효강 종령예하는 "종조님의 정진 수행과 함께 철저한 계율 정신을 이어 받아 청정승단, 청정도량으로 거듭 나아

한다" 법어를 통해 교도들에게 당부했다. 1980년 9월 8일 열반에 이르기까지 한국 불교의 역사를 다시 세우신 원정 대성사께서는 1907년 1월 29일 경남 밀양군 산외면 다죽리에서 일직순씨 가에서 탄생하셨다. 일찍이 한학을 익혀 사서삼경에 능통하셨고, 일제 강점 하에 고등교육을 이수하시고, 잠시 관계와 교목에게 종사하셨다. 해방 전후의

혼란 속에서 대성사께서는 불교에 뜻을 두고 한반도는 물론 중국, 일본 등지를 편력하시며 불경을 다시 세우신 원정 대성사께서는 1907년 1월 29일 경남 밀양군 산외면 다죽리에서 일직순씨 가에서 탄생하셨다. 일찍이 한학을 익혀 사서삼경에 능통하셨고, 일제 강점 하에 고등교육을 이수하시고, 잠시 관계와 교목에게 종사하셨다. 해방 전후의

시면서 진각종의 교리적, 행정적 기반을 확립한다. 대성사께서는 밀교수행에 준제법을 도입하시고, 새로이 총지중을 입교개종하면서 정통불교종단을 이 땅에 우뚝 세우셨다. 엄격한 의례와 사중수법을 비롯한 교상(교상)과 사상(사상)에서 완벽한 밀교를 확립하고, 총본산 총지사를 비롯 전국에 사원을 건립하셨다. 대성사의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의 정신은 오늘날 전국의 교도들의 총지가 되어 불퇴전의 불공 수행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김종열 기자

제15회 만해대상 시상식 성료

평화상에 '아누라다 코이랄라' 마이티 네팔 이사장 수상



8월 11일부터 "평화와 소통"을 주제로 열린 2011년 만해축전 제15회 만해대상 시상식이 8월 12

일 인제 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만해대상은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평화, 실천, 문학 부문에서 수상자 선정 해마다 시상하고 있다.

올해의 수상자는 평화부문에 '아누라다 코이랄라' 마이티 네팔 재단 이사장, 실천부문은 '시리세나 반다

헤티아라치' 전 스리랑카 국립 스리자예와르테나푸라 대학교 부총장, 문학부문에는 '모연' 중국소설가 그리고 '이근배' 시인이 공동 수상했다.

시상식에서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총재 지승스님은 법어를 통해 "이 세상은 용기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 크게 바뀌어 간다. 부처님이 그러하셨고 만해스님이 그러하셨다"며 만해선사의 용기 있는 발걸음을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총재 지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기순 인제대총장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인제 하늘내린센터=김종열기자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웅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십관행 실천해 나갑시다.
둘째, 정제(淨戒)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시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흥포(弘布)합시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시다.

2011년 불교 총지중 "사회화합과 대중간 문화의 한마당," 40년 기념 및 통일음악예술제



2011년 10월 29일(토) 오후 2시부터 여의도 KBS 홀

주최 : 총지중 합창 문화제 추진 위원회
사회 : 김자영
연주 : 메디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특별출연 : 안치환, 주현미, 추가열
최소리의 아리랑 파티

천상의 가릉빈가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다

'2011년 불교 총지중 40년 기념 및 통일음악예술제' 준비 현장

오는 10월 29일 개최 예정인 '2011년 불교 총지중 40년 기념 및 통일음악예술제'를 준비하는 발걸음이 바빠졌다. 총지중은 서울·경인교구 마니합창단, 부산·경남교구 만다라합창단, 대구·경북교구 금강합창단을 운영 중인데, 교구별 합창단의 열띤 연습의 현장을 다녀왔다. <취재·정리=김종열 기자>

서울·경기교구 마니 합창단



서울 마니 합창단(지휘자 김양희, 단장 박정희)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총지중 통리원 2층 반야실에서 정기 연습을 갖는다.

남성단원 10명을 포함, 총 5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행사를 개최하는 중심교구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다. "소프라노. 음이 틀리잖아요.." 김양희 지휘자의 날카로운 음성이 반야실을 울린다. "피아노 그 부분만 다시." 모두가 바짝 긴장한다. 그야말로 육군 훈련소에 온 느낌이다. 각 파트별 음을 정확히 찾아내는 지휘자는 훈련소의 무서운 조교로, 몇 년을 합창을 한 경험에 있는 단원들도 지금 이 순간만은 처음처럼 모든 것에 집중한다. 서서히 각 파트의 음을 찾아가면서 분위기는 고조되었다. 겨우 한곡을 마치고, 모두들 긴장을 놓으려는 순간, 지휘자

선생님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진다. "여러분들은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최소한 무대에 설 때 만큼은 프로 성악가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모두가 없는 시간을 쪼개어 하는 연습이니 지금 여러분은 프로입니다. 아시겠지요?" 모두가 "예"하고 힘차게 대답한다. 지휘자도 단원들로 멋진 프로로서 이번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공연에서 펼쳐질 최고의 화음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대구·경북교구 금강 합창단

8월 21일 자성일 불공을 마친 후, 대구 개천사 합창단 연습실에는 멀리 경주, 영천에서 사원 미니버스를 타고 단원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곳에 있

는 친척을 만나듯 서로 안부를 묻고, 차 한잔 나누며 연습시간을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대구·경북교구 금강 합창단

(지휘자 배해근, 단장 최지영)은 1985년 대구 개천사 합창단으로 출발했다. 최근 합창에 대한 교도들의 관심이 높아져 대구, 경북 연합 합창단으로 개편했다. 오후 1시가 되자 어디선가 지휘자 선생님이 바깥같이 나타나셨다. 3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된 합창단을 선생님은 간단한 말 한마디로 이끌었다. 강함보다는 부드러운 음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웃음으로 연결되는 유머가 모두를 지휘자 선생님에게 집중하게 만들었다. 본격적으로 연습에 들어가 각 파트별 음을 하나씩 잡고, 연결된 화음으로 이어나갔다.

조금은 힘에 부치는 호흡도 지휘자 선생님의 간단한 가르침으로 이내 익혀가는 모습이 마이다사의 손을 연상케 했다. 각자가 가진 독특한 음색을 조화롭게 다듬어 천상의 음으로 만들어가는 금강 합창단, 다가오는 KBS를 무대에서 그 진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경남 교구 만다라합창단



여름의 끝을 알리는 비가 내리는 8월 23일 화요일 오전, 부산 정각사 합창단 연습실을 찾았다. 부산·경남 교구 만다라합창단(지휘자 박운규, 단장 김윤경) 단장은 임원들과 함께 연습전 간식거리와 음료수를 준비하고, 지휘자 선생님과 오늘 연습 일정과 내용을 사전 조율하고 있었다. 연습 시작전 박운규 지휘자 선생님께서 합창단 분위기를 물었더니, "모두가 수행의 과정으로 합창을 한다."고 잘라 대답했다. 다른 합창단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진인 수행의 생활화로 기도하는 집중력으로 연습에 임한다고 했다. 평균 연령이 50대인 단원들은 항상 녹음기와 피스를 들고 다닌다. 지휘자 선생님은 이런 열정적인 분들을 지도하게 된 것만으로, 부처님의 가지력을 입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신도 수행의 과정을 함께하는 자세로 가르치고 있었다. 연습이 시작되자 참회가를 다 같이 합창한다. 불공 때 듣는 것과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역시 합

창단의 연주로 들으니 그 경구가 가슴속에 절로 박힌다. 지휘자 선생님의 본격적인 지도가 시작되자 단원들의 눈빛이 달라진다. 한파트 연습이 끝나고 다른 파트 연습이 진행 될 때에도 어느 누구하나 흐트러짐이 없다. 그렇게 기도하듯이 이어진 연습은 두 시간동안 이어졌다. 연습을 마치는 순간 깊은 선정에서 깨어난 듯한 밝은 얼굴로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 예술제에서 만다라합창단은 단순히 음성 공양을 하는 무대가 아니다. 노래하는 모든 것이 일상의 기도임을 확인하는 자리 가 될 것이다.

10월 29일 여의도 KBS홀은 전국에서 모인 교도들과 초청 인사들로 가득 찼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천상의 가릉빈가를 만나게 될 것이다. 환희에 찬 음성 공양을 듣는 그 날을 기대하며, 준비에 소홀함이 없는 전국 합창단 지휘자, 임원, 단원들께 감사드리며 부처님의 가지력이 함께하기를 서원한다.

• 종립 동해중학교 개교44주년 특별 인터뷰

명문 사학으로 도약을 꿈꾸는 동해중 장재계 교장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월요일 오후, 총지중 종립학교 부산 동해중학교를 찾았다. 교정은 아직은 방학이라 학생

들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행정실 입구에서 만난 장재계 교장선생님의 첫인상은 청년의 느낌이었다. 먼저 선생님과의 동해중학교와의 인연을 물었다. 1981년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교편을 잡은 곳이 동해중학교였다. 지금이야 지역 간 거리와 문화의 격차가 거의 없지만 경북 출신으로 낯선 부산에서 교직을 시작한다는 것이 약간의 두렵고, 설레는 일이었다. 당시 부산 지역은 사범대학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배출되는 인력이 적어 경북지역 사범대 출신 교사들이 많이 왔

다고 한다. 28살 청년으로 교직에 선 것이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그야말로 동해중학교와 청춘을 함께한 것이다. 청년교사로 부임한 당시 동해중은 중학교 입시가 폐지된 이후 신흥 명문으로 급부상 하던 시기였다. 80년대 부산 지역 고입연합고사에서 매년 우수한 성적을 내면서, 부산 운전장에서 동해중 학생하면 '똑똑한 학생'으로 불리울 만큼 학교의 인기가 높았다. 선생님은 당시를 열정적인 교사와 우수한 인재들의 만남이었다 한다. "그 때 선생님들께는 나이도 젊었지만, 학생들을 최고로 만들고자하는 열정이 가득 했습니다." 또한 학

생들도 이러한 교사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최고의 명문교로 인정을 받았다. 80년대 후반 들어 사회의 민주화 열풍을 타고 교육환경도 많이 바뀌기 시작했다. 과외 자율화 조치와 고입 연합고사의 폐지는 공교육의 전반적인 위기를 초래한다. 동해중 역시 이러한 시대의 대세를 피할 수 없었다. 예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학생 수와 수시로 바뀌는 교육 과정은 학사 운영의 방향을 잡을 수 없을 정도였다. 당연한 결론으로 공부 잘하는 학교, 동해중 학교는 그저 평범한 학교로 불리기 시작했다. 요즘 교장 선생님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다. 어쩌면 예전의 실력 있고 당당한 동해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가? 지난해 9월 교장으로 부임하는 순간부터 머릿속을 맴

돌던 생각이. 처음에는 막막했다. 치열한 경쟁 구도로 바뀐 부산의 교육행정을 생각하면, 이대로 가면 영원히 도태된다는 절대 절망의 위기를 느낀 것이다. 선생님은 우선 침체된 학교 분위기를 바꿔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 생각했다. 현재 재직 중인 선생님들 중에는 동해중의 화려했던 과거를 손수 일구어 내신 분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분들의 의식을 재정비하여 예전의 열정을 끌어내는 방안들을 찾았다. 학교의 역할은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인성교육이라는 두 가지 뚜렷한 목표가 있다. 먼저 학력 신장을 위해 발로 뛰었다. 그동안 공립학교 위주로 배정되던 교육청의 각종 지원금을 유치했다. 그 결과 올해만도 '학력신장 프로그램, 영어과 체험교실, 과학 동아리활동, 수학과 지원금' 등을 유치하는 실적을 올렸다.

비록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다시 시작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심은 셈이다. 학생들의 인성교육도 많이 수동적으로 변한 것이 사실이다. 한자녀 가정의 증가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별 어려움 없이 부모의 과잉보호 속에 성장한다.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극히 수동적인 아이들에게 어떤 방법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제 시할까? 많은 고민 끝에 우선 아이들의 잠재 능력에 대해 같이 생각하고, 토론 하는 공간을 만들었다. 교실의 이름은 'Wee class'이다. 이곳은 진로나, 고민 상담은 물론 학생들이 자유로이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집이나, 친구 관계의 고민으로 모든 것이 귀찮을 때 학생들은 이곳에서 자기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학생들

의 잠재 능력을 깨우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 결과 동해중을 대표하는 동아리 사물놀이단은 전국 최고의 실력을 자랑한다.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에는 총지중을 대표해 종단 홍보에 최 일선을 담당한다. 장재계 교장 선생님은 올해를 동해중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재단과 교사, 학생이 혼연일체가 되어 실행해 나간다면 부산 최고의 사학으로 성장 할 것을 자신했다. 30년 전 한 청년 교사가 청운의 꿈을 안고 낯선 곳에서 처음 교편을 잡았습니다. 자신의 청춘을 다 바친 학교의 수장이 되어 이제는 회향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다. 청년 교사의 초발심이 끝까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지가 함께 하기를 서원 한다. 부산 동해중=김종열 기자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개천사 무명씨 8/25 10,000	기 로 원 봉 8/22 970,000	벽룡사 무명씨 8/17 20,000	실지사 이화자 8/16 10,000	해정사 오혜민 8/4 20,000
개천사 전경택 8/16 20,000	기 로 지선행 8/22 970,000	벽룡사 양정현 7/26 10,000	운천사 반야화 8/24 20,000	화음사 하창선 8/22 10,000
관성사 박현숙 7/26 10,000	기 로 총지화 8/22 10,000	벽룡사 양지현 7/26 10,000	운천사 이성미 8/11 50,000	홍곡사 지 정 8/16 20,000
관성사 박현숙 8/24 10,000	단음사 법연지 8/12 10,000	벽룡사 이종호 7/29 20,000	운천사 이창자 8/19 5,000	강순란 8/2 5,000
관성사 황성녀 8/3 10,000	단음사 천 공 8/5 4,000	선립사 심지장 8/11 10,000	자석사 김은희 8/22 30,000	김태진 8/9 20,000
관음사 신막심 8/9 10,000	덕화사 법 등 7/28 20,000	선립사 정복지 8/11 10,000	자석사 신정희 8/16 200,000	박말조 8/22 10,000
교산수련원 권성수 8/2 20,000	덕화사 하순옥 8/16 5,000	선립사 황규석 8/4 10,000	정각사 구정희 8/18 20,000	신 바 8/8 100,000
기 로 대 관 8/22 10,000	만보사 박선희 8/24 20,000	성화사 우담바라회 8/25 50,000	정각사 박동휘 8/18 10,000	이혜원 8/1 5,000
기 로 대자행 8/22 10,000	만보사 정덕순 7/26 10,000	수인사 김봉기 7/26 10,000	정각사 이정선 8/22 5,000	임동수 8/12 30,000
기 로 밀공정 8/22 10,000	만보사 한미숙 8/24 10,000	수인사 장영택 8/1 50,000	제석사 신정희 8/4 200,000	주일금 8/5 10,000
기 로 법수원 8/22 10,000	말행사 신정희 7/29 50,000	승천사 원 봉 8/16 10,000	제석사 안재석 8/10 150,000	최순전 7/27 20,000
기 로 법장화 8/22 10,000	밀인사 이혜성 8/9 20,000	승천사 지선행 8/16 10,000	지인사 승효제 8/16 10,000	최순전 8/22 5,000
기 로 법지원 8/22 10,000	밀인사 이희원 8/10 10,000	시법사 환수원 8/16 10,000	지인사 허성동 8/17 20,000	
기 로 불멸심 8/22 10,000	밀인사 정정희 7/29 5,000	실보사 신정희 8/10 215,000	총지사 이인성 8/10 30,000	
기 로 사홍화 8/22 10,000	법천사 김경숙 8/1 5,000	실보사 이순옥 8/2 5,000	해정사 경규혁 8/1 30,000	
기 로 상지화 8/22 10,000	법천사 시 정 8/22 10,000	실보사 조순애 8/11 100,000	해정사 경은현 8/1 30,000	
기 로 수증원 8/22 10,000	법천사 원만원 8/22 10,000	실지사 송우섭 8/17 5,000	해정사 박순희 8/9 50,000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7668610
 - 우리은행: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중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 위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 돕기에 사용됩니다.

III "편집위원이 가다" 병인양요의 현장, 강화를 찾아서

"강화는 나라를 지킨 호국의 섬이었다"

유난히도 비가 많은 여름을 맞이, 맑은 하늘을 본다는 것만으로 행운으로 여겨지는 날씨였다. 8월 19일 오전 취재를 위해 강화도로 출발하는 편집위원들은 맑은 하늘을 오랜만에 만나, 떠나는 편집위원회에 부처님의 가지력이 통했다고 다들 기뻐했다. 서울로부터 약 60KM 떨어진 강화는 경기도와 서해바다, 그리고 인천과 인접한 섬이다. 지금은 두 개의 다리로 경기도 김포와 연결되어 섬이라는 인상은 없다. 행정구역으로는 인천광역시에 속해있다. 한강 하구를 막고 있는 지형학적 위치는 강화를 역사의 격랑 속으로 몰고 들어간다. 멀리 고려로부터 근세에 이르기 까지 임시수도로 외적에 항거한 최후의 보루로서 많은 사건과 유적이 남아있는 곳, 지금부터 강화를 살펴 보자.

-호국의 역사 (강화의 지정학적 위치)

강화도는 지정학적으로는 마식령산맥의 끝과 김포반도가 연결되어 있던 지점으로 침식작용으로 섬이 되었다. 서해로 흐르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은 강화 앞바다에서 합류한다. 강화라는 이름은 고려에 들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고려시대에는 혈구군으로, 신라때는 해구군으로 불리웠고, 고려 문종 때 처음으로 강화군으로 표기된다. 강화는 한강하구에 위치한 섬으로 황해도 개성과, 경기도 김포를 접하고 있어 군사적으로 매우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래서 강화도는 흔히 민족의 성지이자 호국의 성지라 불린다. 남북의 길이 28km, 동서길이 16km, 둘레 112km, 면적 407.7km²로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크다. 강화도에는 수많은 국방 관련 유적들이 해안을 따라 들어 서있다. 16km에 달하는 내의 성곽, 그리고 4개의 진을 비롯하여 7개의 보와 53개의 돈, 8개의 포대, 8개의 봉화대가 위치해 군사 요새를 방불케 한다. 왜구의 침입이 잦았던 남해안도 아니고, 북방의 오랑캐 점령지대도 아닌데 이렇듯 많은 국방시설물들을 필요로 한 까닭은 무엇일까. 역사를 통해 보면 강화도가 외적에 넘어가면 곧이 우리나라 전 국토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려 고종 18년(1231년) 몽고의 침략을 당하자, 이듬해 강화로 천도, 39년간 몽고군과 대치하면서 항쟁하였다. 이때 불심(佛心)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16년 동안 팔만대장경을 보관했으며 더불어 마니산 꼭대기의 참성단을 중건, 하늘과 단군에 제사지내고 우리 민족이 하나로 단결, 외적에 대항하여 나라를 지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조선 선조 병자호란 당시 왕실과 신하들이 모두 강화로 피난하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했으나, 남한산성보다 강화가 먼저 함락 당하자 인조는 굴욕적인 항복을 하고 말았다. 조선 말기에는 통상을 위해 우리나라를 압박한 서양인들과 여러 번 전투가 벌어진 곳이기도 하다. 1866년 프랑스와 맞서 싸운 병인양요와 5년 뒤 미국과



▲광성보 성곽

사진=박묘정 위원

과 조선의 한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섬이 강화도이다. 그곳에서 배를 타고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마포나루를 통해 서울을 침공할 수 있다. 그렇기에 강화도에는 예로부터 서울수비를 위한 국방시설이 많았던 것이다.

-프랑스의 침공을 부른 병인년(1866년) 천주교 박해

고종(高宗) 3년(1866년) 대원군 치하에서 한국 천주교 사상 최대의 가혹한 박해가 일어났다. 병인박해이다. 이 사건의 원인은 당시 시베리아를 차지한 러시아의 남하정책에서 비롯된다. 고종 1년에 러시아인들은 함경도 경흥부에 나타나 통상을 요구한다. 당시 대원군과 정부는 러시아의 요구에 대처할만한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 고종 2년(1865년) 9월에 제차 러시아인들이 경흥부에서 통상을 요구해 온다. 당시 승자인 남종삼 등은 대원군에게 한불조약을 맺어 나폴레옹 3세의 위력을 이용하면 러시아의 남하 정책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고 건의하였다. 러시아의 위력에 두려움을 느낀 대원군은 남종삼의 건의를 받아들여 당시 프랑스 선교사들이 주류를 이루던 천주교에 협조를 요청한다. 대원군은 남종삼에게 한국교회의 책임자인 베르뇌(Berneux) 주교와 만남을 요청하고, 만일 러시아의 세력을 막아준다면 천주교에 대하여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고 제안한다. 남종삼은 황해도에서

이러한 경비태세에 불리함을 느꼈는지, 9월 25일 강유·연변만 측량하고 중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로즈 제독은 순양함 게리에르를 위시한 군함 7척과 600명의 해병대를 이끌고 부평부 물치도에 나타났다. 10월 14일 이 중 4척 함정과 해병대가 강화부 갑곶진을 통해 상륙한다. 이에 진해문 부근의 고지를 점령한 프랑스군은 한강수로의 봉쇄를 선언한다. 10월 16일 프랑스군은 강화성을 총공격, 교전 끝에 점령하고, 강화성 내의 무기·서적·양식 등을 약탈하였다. 강화성 함락을 전해들은 조종은 이경하·신현·이기조·이윤희·한성근·양현수 장군에게, 서울을 위시하여 양화진·동진·문수산성·정족산성 등에 최후의 배수진을 치도록 명령한다. 조선은 10월 19일 일단 프랑스측에게 격문(檄文)을 보내어, 선교사 처단의 합법성과 프랑스함대의 불법 침범을 들어 당장 물러날 것을 통고한다. 로즈제독은 회답을 통하여 선교사 학살을 비난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과, 전관대신을 과격하여 자기와 조약의 초안을 작성하라고 맞섰다. 10월 26일 밤 프랑스군 약 120명은 조선군의 진지를 파악하기위해 문수산성을 정찰 감행한다. 한성근 장군의 소부대는 미리 잠복하여 침투하는 프랑스군을 무려 27명의 사상자를 내는 전과를 올린다. 처음으로 막대한 인명손실을 입은 프랑스군함은 보복조치로 민가·군영을 가리지 않고 황해도 연안까지 무차별 포격을 가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11월 7일 프랑스 해병 160명은 대령 올리비에의 지휘로 정족산성을 공략하려다가 잠복·대기 중인 양현수가



▲광성보

사진=박정희 위원

포고 중이던 베르뇌 주교에게 인편을 보내 서울로 돌아오게 한다. 그로부터 한달 뒤 병인년(1866년) 1월 31일 남종삼은 주교의 도착을 알리기 위해 다시 대원군을 방문한다. 그런데 대원군의 태도는 너무나 냉담했다. 대원군의 태도가 돌변한 원인은 얼마 전에 북경에서 보내온 조선사신의 서신이 원인이었다. 1858년 제2차 아편 전쟁으로 아기된 청나라와 영국, 프랑스 간의 전쟁은, 1860년 영불 연합군에 의해서 북경이 함락된다. 이때 청나라 조종의 위신은 바다에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에 분개한 중국인들이 보복으로 외국인 선교사와 중국인 신부, 신자들이 다치는 대로 살해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였다. 여기에 큰 힘을 얻은 보수적인 유교 관리들은 대원군의 천주교 교섭을 공공연히 비난하고, 교도들의 탄압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구나 당시 운현궁에도 천주학생이 출입한다는 소문이 퍼져 조대비까지 들고 나오자, 정치적 수세에 몰린 대원군은 천주교의 탄압을 결심하고 선교사들의 체포를 명령한다. 이 가혹한 박해로 한국에 있던 선교사 12명 중 9명이 처형되고, 남종삼, 정의대 등 수 많은 제명인들이 참수되었다. 불과 수개월 동안에 조선 반도에서 약 8천명에 달하는 천주교인이 목숨을 잃는다.

-프랑스의 침공 그리고 약탈

겨우 조선을 탈출한 리델 신부는, 중국 텐진에 주둔한 프랑스 인도차이나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에게 조선에서 일어난 천주교도 학살사건을 알렸



다. 조선의 상황을 보고받은 북경 주재 프랑스 대리공사는 청나라 조종에 공식적인 서한을 보내 조선으로 진격할 의사를 밝힌다. 이후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든 청나라는 이에 간섭할 수 없다고 통고한다. 청나라는 조선에 이를 알리고 방비할 것을 권유한다. 프랑스 등태를 알게 된 대원군은, 천주교도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며, 국경의 수비를 강화한다. 병인년 9월 18일 로즈제독은 박해를 피해 탈출한 리델 신부와 조선인 천주교인 3명의 안내를 받아 조선 침공을 감행한다. 프랑스 군함 3척은 인천 앞바다와 한강 하구를 거쳐 양화진(楊花津)을 통과하여, 서울 근교 서강(西江)에까지 이르렀다. 극도로 긴장한 대원군은 어영중군 이용희에게 경인연안을 엄중 경비하도록 하였다. 프랑스 함대

는 이러한 경비태세에 불리함을 느꼈는지, 9월 25일 강유·연변만 측량하고 중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로즈 제독은 순양함 게리에르를 위시한 군함 7척과 600명의 해병대를 이끌고 부평부 물치도에 나타났다. 10월 14일 이 중 4척 함정과 해병대가 강화부 갑곶진을 통해 상륙한다. 이에 진해문 부근의 고지를 점령한 프랑스군은 한강수로의 봉쇄를 선언한다. 10월 16일 프랑스군은 강화성을 총공격, 교전 끝에 점령하고, 강화성 내의 무기·서적·양식 등을 약탈하였다. 강화성 함락을 전해들은 조종은 이경하·신현·이기조·이윤희·한성근·양현수 장군에게, 서울을 위시하여 양화진·동진·문수산성·정족산성 등에 최후의 배수진을 치도록 명령한다. 조선은 10월 19일 일단 프랑스측에게 격문(檄文)을 보내어, 선교사 처단의 합법성과 프랑스함대의 불법 침범을 들어 당장 물러날 것을 통고한다. 로즈제독은 회답을 통하여 선교사 학살을 비난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과, 전관대신을 과격하여 자기와 조약의 초안을 작성하라고 맞섰다. 10월 26일 밤 프랑스군 약 120명은 조선군의 진지를 파악하기위해 문수산성을 정찰 감행한다. 한성근 장군의 소부대는 미리 잠복하여 침투하는 프랑스군을 무려 27명의 사상자를 내는 전과를 올린다. 처음으로 막대한 인명손실을 입은 프랑스군함은 보복조치로 민가·군영을 가리지 않고 황해도 연안까지 무차별 포격을 가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11월 7일 프랑스 해병 160명은 대령 올리비에의 지휘로 정족산성을 공략하려다가 잠복·대기 중인 양현수가

-그 역사만큼이나 많은 강화의 문화유적

강화는 선사시대부터 이미 사람들이 거주하였다. 우리나라 그 어느곳보다도 다양한 시대의 유물과 유적이 발견되는 지역이다. 특히 청동기 시대의 강화고인돌은 지난 2000년 11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될 만큼 역사적 가치가 높다.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일대의 고인돌들은 지석묘, 돌멘(dolmen)이라 불리며 북방식·남방식·개석식 등의 3종으로 분류한다. 이곳 고인돌군은 16기(基)의 북방식·남방식 고인돌이 고루 분포

해 있다. 이 가운데 1964년 사적으로 지정된 '강화지석묘'는 중부지방에서는 보기 드문 거대한 북방식(탁자식)이다. 북방식 고인돌의 구조는 4장의 광돌로 직사각형 돌방을 구축하고, 그 위에 뚜껑돌을 얹어 놓는 형식이다. 화강암 계통의 석재를 사용하였고, 지상 높이 260cm, 길이 710cm, 너비 550cm로 남한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고인돌이다.

-고려궁지와 외규장각

한 해국정책을 더욱 굳혀간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흐른후 강화도는 근대 조선의 역사를 바꾸는 현장으로 다시 역사의 전면에 선다.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사적 제133호 고려궁지는 강화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현장이다. 이곳은 몽고의 침략에 항전하던 고려가 강화 천도 후 터를 잡은 궁궐터이다. 1232년 6월 고려 고종은 자주적 정신으로 항몽의 기치를 높인 무인들의 주장에 따라 지세가 험한 강화도로 천도를 결정한다. 강화로 천도한 고종은 약 2년에 걸쳐 연경궁을 중심으로 궁궐과 관아 건물들을 짓고, 명칭을 개경의 궁궐과 똑같이 하고, 궁궐 뒷산도 몽고어인 '강화성'이라 불렀다. 1270년 송악산이라 불렀던 강화도 동쪽의 강화가 성립되어 개경으로 환도한 뒤 궁궐과 성은 무너졌다. 그후 고려궁지에는 조선이 들어서고 정릉전, 행궁, 만경전, 봉선전, 외규장각, 척천정, 세심사 등의 궁궐 건물과 지방 관

▲선원사지

사진=강경민 위원

아인 유수부 건물들이 건축되어진다. 유사시 왕이 거주 할 수 있도록 그 규모를 갖춘다. 외규장각은 1782년 2월 정조가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할 목적으로 강화도에 설치한 도서관이다. 왕립 도서관인 규장각의 부속 도서관 역할을 하였다. 설치 이후 왕실이나 국가 주요 행사의 내용을 정리한 의궤를 비롯해 총 1,000여 권의 서적을 보관한다. 임진왜란으로 유일하게 남은 왕조실록의 보관을 위해 지어진 정족산성의 사고와 더불어 조선의 기록문화를 보관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고려 궁지는 그 시작이 몽고에 항거하기 위한 임시 수도의 중심으로 출발하여, 조선에 들어 병자호란까지 왕실의 최후 보루 역할을 묵묵히 담당했다.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철수 하면서 모든 건물들에 불을 질러 지금은 명위현·이방청 그리고 최근 복원된 외규장각만이 천년의 터를 지키고 있다.

-그 역사만큼이나 많은 강화의 문화유적

강화는 선사시대부터 이미 사람들이 거주하였다. 우리나라 그 어느곳보다도 다양한 시대의 유물과 유적이 발견되는 지역이다. 특히 청동기 시대의 강화고인돌은 지난 2000년 11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될 만큼 역사적 가치가 높다.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일대의 고인돌들은 지석묘, 돌멘(dolmen)이라 불리며 북방식·남방식·개석식 등의 3종으로 분류한다. 이곳 고인돌군은 16기(基)의 북방식·남방식 고인돌이 고루 분포



사진=김종열 기자

를 감안하면 무척이나 아이러니한 일이다. 전통 사찰의 양식으로 지어진 성당은 멀리서는 사찰이나, 향교 건물로 보인다. 성당은 외벽에는 달리 내부에는 바실리카 양식이 결합된 독특한 구조다. 1900년 완공된 강화성공회성당을 거점으로 영국성공회는 본격적인 한국 선교를 시작한다.

'편집위원이 가다' 강화편은 취재에 참석한 모든 위원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지참하였다. 출발하기 전 무엇을 취재 할 것이며, 교도들에게는 어떤 정보를 전할 것인가를 여러 번 고민 했다. 각자가 사전조사를 거쳐 현장에서 취재 노트를 작성했다. 그만큼 강화에 대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140년 만에 재 지리를 찾는 조선왕실위계의 흔적을 찾아 강화 외규장각 앞에 섰을 때는, 견재했을 고려 궁지의 여러 건물들을 상상 속에서 만났다.

또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 약탈에 정신없는 프랑스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듯 했다. 지금은 유허만 남아 조용한 잔디밭으로 변했지만, 당시의 아픈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느꼈다. 편집위원회는 매월 주제를 정해 편집위원회 통신원이 함께 취재를 하고자 한다. 교도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취재=편집위원 박묘정, 박정희, 강경민, 통신원 밀인사 장경임, 정리=김종열 기자.

불교의 선정 ⑥

오정심관(五停心觀)…근본정에 이르는 다섯 가지 방법



화령 (총양교육원장)

색계사선과 같은 이상적인 근본정에 이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방법은 각자의 근기와 자질, 성격 등에 따라서 각기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알려진 것으로는 오정심관(五停心觀)이 있다. 오정심관이란 부정관(不淨觀), 자비관(慈悲觀), 인연관(因緣觀), 계차별관(界差別觀), 수식관(數息觀)의 다섯 가지 관법을 말한다.

우리 몸의 더러움을 관찰하는 부정관

먼저 부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가 더럽다는 것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주로 탐욕이 많고 성욕이 강한 사람에게 적합한 방법인데, 인간의 시체가 부패되어 가는 과정을 관찰하는 것에 의해서 탐욕의 번뇌를 제거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청어상(靑瘀相)이라고 해서 시체가 햇빛에 바래 변색되는 것을 관찰하기도 하고, 창상(脹相)이

라고 하여 시체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관찰하기도 하며, 농상(膿相)이라고 하여 시체가 문드러져 고름이 나는 모양을 관찰하는 등 시체의 여러 가지 추악한 모습을 관하여 마침내 백골이 되어 가는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다. 혹은 백골관(白骨觀)이라고 하여 사람의 해골을 앞에 놓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부패의 과정을 떠올리기도 한다.

부정관은 이렇게 하여 인간의 여러 가지 더러운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육체에 대한 애착을 없애고 근본적으로는 탐욕 자체를 없애므로써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이다. 우리의 몸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탐욕이 없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탐심으로 부글부글 끓던 마음이 조용하게 되어 정신통일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이것을 부정관이라고 한다.

어리석음으로 일어나는 번뇌를 제거하여 정신을 통일시키는 것이 인연관이다

화를 다스리는 자비관

두 번째로 자비관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 적합한 관법으로서 진심(真心)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자비관은 친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무관심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조차 자비의 마음을 내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살아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이들의 괴로움을 제거해 주고 즐거움을 주겠다는 자비심을 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면 마음이 편안해져 정신집중

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며 자비심을 가지고 대할 때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 방법의 효과를 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십이연기의 관찰로 어리석음을 제거

오정심관의 세 번째는 인연관이다. 인연관은 연기관이라고도 하는데 십이연기를 관찰함에 의하여 어리석음의 번뇌를 없애는 것이다. 인연관은 십이연기를 순의 방향으로도 관찰하고 역의 방향으로도 관찰한다.

즉, 무명에서 시작하여 괴로움이 발생하는 순서대로 관찰하는 방법과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시작하여 괴로움이 발생하는 원인을 밝혀가는 방법이 있다. 순의 방향으로 관찰한

다는 것은 고의 원인으로부터 그 결과를 더듬어 나가는 것이며, 역의 방향으로 관찰한다는 것은 고라는 결과에서 더듬어 올라가 그 원인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혹은 고의 원인을 제거함에 따라 고가 소멸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을 십이연기의 순관과 역관이라고 한다. 이렇게 십이연기를 관찰함에 의하여 어리석음으로 일어나는 번뇌를 제거하여 정신을 통일시키는 것이 인연관이다.

이러한 인연관은 우치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부정관, 자비관,

연기관은 각각 탐진치의 삼독을 제거하여 선정에 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집과 집착을 버리는 계차별관

네 번째는 계차별관이라는 것이 있다. 다른 말로는 계분별관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자아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관법으로서, 아집을 버리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여기에서 계(界)라는 것은 지·수·화·풍 등의 온갖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요소의 분별을 통하여 나라는 것을 포함한 그 어떤 것에도 영원한 실체나 본체 같은 것은 없다고 관하는 것이 바로 계분별관이다.

이 관법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실체나 자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여러 가지의 구성요소들에 의하여 이루어져 있다고 관하는 것이 기본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구성요소라는 것도 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연기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임시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인간은 오온 가화합에 의하여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관해야 한다. 우리들은 인연에 의하여 구성된 가화합의 것을 나라고 고집하는 아집에 사로잡혀 탐욕을 부리고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른다.

또한 그로 인해서 모든 괴로움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것을 단멸하고 마음을 평정하게 가지는 것을 계차별관, 계분별관이라고 하는 것이다.

총기동의보감

여성생리질환



조선화 원장 (여성美 한의원)

한의학에서는 질염을 냉대하의 관점에서 보고 설명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통해서 자궁을 비롯해 인체의 어혈과 노폐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

냉대와 가려움 등을 동반하는 급성염증일 경우 산부인과적인 치료를 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후에도 자주 재발되는 만성질염의 경우나 심한 가려움이나 냉사 등을 동반하지 않으면서 질 분비물이 증가해서 나타나는 질염 및 냉대하의 경우가 대부분 한 방질염치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소염과 항균에 초점을 둔 치료보다 근본원인이 되는 자궁골반 순환을 도와 어혈과 노폐물의 배출을 돕고 정상적인 생리를 회복해가기 위한 기능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산골짜기에 햇빛이 들지 않는 습하고 그늘진 곳에 각종 곰팡이와 균류가 쉽게 서식하듯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위한

증상에 대한 치료보다

정상적인 신체 생리회복이 중요

러나 이러한 생리배출과정에 문제가 생겨 자궁골반내에 어혈과 노폐물 등이 정체되게 되면 질염을 비롯해서 각종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평소 자궁이 위치한 하복부가 차고 냉한 여성,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예민한 여성, 생활환경이 불규칙한 여성들의 경우에 있어 신체리듬의 균형이 깨어지고 이로 인해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유발되면서 자궁 역시 면역력이 약해지고 자궁골반으로의 원활한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가 냉대하를 통한 질염의 발생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궁근종이나 자궁내막증, 자궁선근증 등 자궁내소질환을 지닌 여성들의 경우에 있어서 발병 환경과 원인이 되는 자궁골반내의 혈액순환장애문제로 인해 잦은 열증과 냉대하를 동반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됩니다.

치료를 요하는 병적인 냉대하 상황외에도 생리적인 대하는 사춘기나 임신시, 또는 배란기에 나타나는 대하로 이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현상으로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습니다.

주로 질염에 의해서 냉대하등의 분비물이 증가하고 색이 진해지면

대책은 햇빛이 잘 들게 하여 눅눅하고 습한 상황 바뀌는 것입니다.

참고로 잦은 화학세정수와 항생제의 사용은 오히려 질 자체의 자정능력을 약화시켜 오히려 각종세균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치료외에도 평소 자궁면역성을 높이고 자궁골반순환을 돕기 위한 노력이 치료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냉대하 처치법

• 생강초 120g과 썬 100g을 달여서 그 물로 하루에 1-2회 세척해 줍니다.

• 사상자 40g, 고삼, 황백 10g, 천련자 5g, 고백반 15g을 달여서 그 물로 세척해주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익모초 잎을 말려서 보관하였다가 물 1500cc에 익모초 50g을 넣고 약 1시간 동안 달여서 이 물로 하루 2번 세척해 줍니다.

• 뒷물시 미지근한 물에 식초 한 두방울 정도를 희석해 활용하게 되면 질내의 약산성을 유지해 자연항균력을 높여가는데에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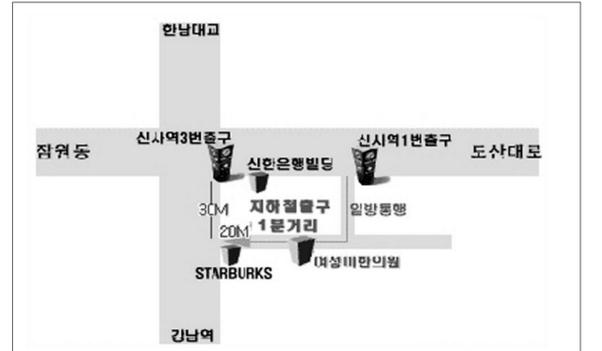
Advertisement for '여성美' Chonggyeok Women's Hospital, featuring a portrait of the director and a list of services including gynecology, diet, and acupuncture.

Advertisement for '자경단(子經丹)', a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or menstrual disorders, with an image of the medicine bottle.

여성美 한의원

- List of clinical services: Gynecology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etc.), Diet (자궁근종, 질염, 냉증, etc.), Pregnancy (불임, 임신오자, etc.), Postpartum (산후풍, 산후비만, etc.), and Acupuncture (중양질환, 자궁근종, etc.).

Media appearances of the director on KBS and Yooka TV, with a quote: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and "Yooka TV '전문'의 상담"



◆ 제31주기 종조멸도절 특집기획

종조 원정 대성사의 교육불사 ‘강공회(講工會)’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밀교의 증흥과 구국도생(救國度生)의 대비원(大悲願)을 세우시고 이 땅에 밀교종단 ‘불교총지중’을 창종하셨다. 그로부터 어언 40년이 흘렀다. 창종 초창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종조님께서 특히 교육불사(敎育佛事)에 종단의 장래가 달려 있다고 하시고 백년대계의 기틀을 마련하셨다. 그 가운데 남다른 열정과 정진력으로 종단내의 교육불사를 열어나셨으니 그것은 바로 ‘승단의 강공회’를 개최하셨다. 그 전통은 역대 종령님으로부터 계속 유지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재세할 당시 강공회가 열리면 전국 스승님들은 법을 듣고자 하는 바램과 즐거운 마음, 기대와 설렘이 가득하였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경청을 하며, 각자의 수행은 물론 교화방편의 법문으로 삼았던 강공회였다.

종조님께서 강공회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정사, 전수 및 종무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춘, 추 2기의 정기 강공회를 개최한다”고 선언하셨다.

종조님으로부터 시작된 강공회는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강공회는 일선 사원에서 경험한 교화 사례들과 불공을 통하여 얻어진 공덕을 서로 이야기 하고 법담을 나누는 자리였고 경전을 통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자리가 되어 왔다. 중생을 제도하는 교화방편과 경험담을 공유하고 나누는 자리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강공회는 본래의 뜻에서 조금 벗어난 적도 있었다. 경공부(經工夫)를 위주로 하는 경강공회(經講工會)가 되어야 하는데, 실상은 각종 회의가 중심이 된 강공회 일정일때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강공회 본래의 취지와 방향에서 변질되었다는 지적도 많이 있어 왔다. 그리고 창종 당시의 열의와 적극성은 많이 사라지기도 했다. 창종 당시의 강공회(講工會)의 분위기가 못내 아쉽기도 했다. 그러나 다행히 근간에 와서 다시 강공회(講工會)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일정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활발한 교육이 이루어져 강공회의 본래의 생명력이 되살아나고 있는 듯하다.

9월 8일은 종조님의 열반일이다. 총지중은 종조님의 열반일을 달리부르며 ‘종조멸도절

(宗祖滅度節)’이라 부른다. ‘종조님의 육신(肉身)은 말하였지만 그 가르침은 남아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멸도절을 즈음하여 종조님 재세시에 개최되었던 강공회를 다시금 살펴 보면서 창종 정신과 종조님의 대비원(大悲願)을 되새겨는 보는 것도 뜻깊은 일일 것이다.

강공회(講工會)는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모임’을 말한다. 종조님께서 창종 이후 첫 강공회(講工會)를 총기 2년(1973년) 6월 27일에 개최하셨다. 성북선교부 도량에서 6월 29일까지 3일간 개최했다. 종단의 제1회 춘기강공회로서 강공회의 효시가 되는 셈이다. 성북선교부는 오늘날 실지사(悉地寺)의 전신(前身)이다. 당시는 총지중의 총본산 역할하던 도량이었다. 첫 강공회는 종단의 기틀을 마련한 자리였다. 바로 법과 제도, 기구(機構) 등을 결정하였다. 종제(宗制)의 확립을 선포하는 자리였다.

교사 자료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앙동 123번지의 26호 소재 총지중 총본산에서 전국 교역자(敎役者) 및 교무(敎務)를 총망라한 전국 총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종제(宗制)를 확립했다. 오후 1시30분, 대종사님의 임석(臨席)으로 총회 개최선언에 이어 3·7의례를 엄수했다. 대종사님이 임시의장을 지명하였는데 임시의장에 김균 정사로 정해졌다.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종헌(宗憲) 제정안 가결’, ‘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종령 재추대 만장일치 가결’, ‘종양총회법 가결 및 종회의원 선출’, ‘통리원장 및 4 부장 임명 인준 가결’, ‘원의회(院議會) 구성’ 등을 확정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사항은 종단의 모든 법회나 의식, 회의에 앞서 반드시 총지중의 의례법으로 불사(佛事)를 올렸다는 점이다. 이 전통은 오늘에도 이어져 각종 회의나 모임 등에서 3·7의례법으로 불사를 올리고 있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종정(宗政)을 운영했다는 점이다. 이 총회는 오늘날과 같은 승단총회(僧團總會)로 정착되었다.

처음 열린 강공회에서 종조님께서 아주 중요한 전법(典法)을 설하셨으니 바로 보은시법(報恩施法)이었다. 보은시법(報恩施法)이란 은혜에 보답하는 법을 말한다. 이 보은시법(報恩施法)은 종단의 주요한 불공법인 동



강공회에서 강설하고 계시는 종조 원정 대성사.

시에 생활 속의 실천법이 되었다.

특히 상하반기 49일 불공은 물론이요 새해 불공과 월초불공, 다급하거나 중요한 서원불공이 있을때 병행하는 보시법(布施法)이자 희사법(喜捨法)이다. 은혜 갚는 길은 바로 4대 은혜를 갚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그 사은(四醵)이란 삼보의 은혜·부모의 은혜·나라의 은혜·중생의 은혜이다. 보시는 흔히 법시(法施), 재시(財施)를 말하는데, 총지중에서는 별개로 보은시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내놓으셨던 것이다. 이 보은시법을 줄여서 ‘은시(恩施)’라고 한다. 이 보은시법은 지금도 불공과 기도를 올릴때 실천법으로써 많이 활용되고 있다.

첫 강공회를 원만히 마치고 나서, 4개월이 지난 10월17일 제2회 강공회가 다시 열렸다. 이로써 강공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춘·추기에 열리게 되는 단초가 되었다. 제2회의 추기 강공회에서 특이할만한 것은 본격적으로 경

공부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1회의 강공회가 종제(宗制)를 확립하고 종단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면, 2회는 위상(敎相)과 사상(事相)을 확립하는 자리였다.

그래서 1회의 강공회는 회의 중심의 강공회였고, 2회부터 경전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강공회가 되었다. 종조님께서 화도방편(化導方便)으로 종단의 교전(敎典)을 편찬하셨는데, 바로 『불교총전(佛敎總典)』이었다.

종조님께서 창종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먼저 착수하신 것이 종단의 교전(敎典)이었다. 현밀(顯密)의 한문 경전에서 요목별로 발췌하여 한글로 번역하여 종조님께서 손수 집필 하셨다.

1972년 10월17일, 번역하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1년이 지난 1973년 10월 17일에 제2회 강공회가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서 첫 강설이 있었다. 집필하신 원고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고 가제본 형태로 배부되었고, 이 자료는 승단의 스승님들에게는 좋은 법석(法席)이 되었다.

3일간 진행된 강공회는 서울의 본산이 아닌 지방 사원에서 개최되었는데, 오늘날의 개천사(開天寺) 도량이었다. 당시에는 대구선교부라고 불렀다. 지방 개최는 종조님의 유언한 사고를 엿 볼 수 있다.

본산이 아닌 지방 사찰에서 강공회를 개최한 사실에서 고정된 틀에 매이지 않으시는 종조님의 진면목을 짐작케 한다. 1973년 6월과 10월의 춘추기 강공회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당시에 6월에 개최되었던 강공회는 춘기(春期)인 4월로 앞당겨졌다.

다음해인 1974년의 제3회 춘기 강공회에서 강공회는 새로운 틀을 갖추게 된다. 강공회가 열리는 하루 전날 각종 회의를 개최하고 그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강공회를 개최했던 것이다. 4월 23일에는 원의회(院議會)와 중앙종회(中央宗會)가 열렸고 4월24일부터 3일간 제3회 강공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경강공에서 종조님은 불교총전 가운데 ‘성직자(聖職者)’에 관한 부분을 강설하셨다. 회의에서는 ‘사중수법 중 항복법의 불실시’ ‘불전공양(佛前供養)시 헌화(獻花)와 소향(燒香) 통일’ ‘금강막(金剛幕)과 법등(法燈) 제작’ 등의 안건이 가결되었다. 종단의 주요한 사법(事法)이 결정된 회의였다.

그해 가을, 10월22일부터 4일간 제4회 추기 강공회가 개최되었다. 일정이 하루 더 늘었다. 이때부터 『불교총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전들이 강설되었다. 종조님께서 총지중이 재가종단인만큼 재가수행자의 일화를 담고 있는 『유마경』을 번역함과 동시에 이를 직접 강설하셨다. 그리고 이날 강공회에서는 종조님은 교도들의 신심을 고취시키고 교도들의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법을 선포하셨는데, 전교(傳敎)와 시교(試敎)·법로장(法老長) 제도의 실시였다. 교사 자료에서 관련 사실을 살펴본다.

『교도로서 2세대를 제도하면 시교(試敎)가 되고, 5세대를 제도하면 전교(傳敎)가 되는 것이니, 이것을 6인 연합이라고 한다. 그 연합에서 또 3개 이상의 연합이 생기면 당초 연합의 전교는 자동적으로 법로장(法老長)이 되며 전교와 법로장은 불명(佛名)을 수여하고 관정수계(灌頂受戒)하며 전교와 법로장 중에서 수승을 선택하여 상당히 우대하는 것을 그 주요 목표로 한다.

그러하여 교도연락과 동행 및 출석상황 등을 항시 파악하게 하여 전교회(傳敎會議)를 자주 열게 한다. 그러하여 교세의 저변 확대를 기한다.』

종조님께서 교육불사 뿐만 아니라 신도 관리에도 각별하셨다. 신도관리와 중생제도, 더 나아가 교세발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전교(傳敎)와 시교(試敎) 법로장(法老長) 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료 및 원고 정리 :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 연구원)

법문을 듣는 자세

법문을 들을 적에는 마치 얇은 얼음을 밟듯이 하여 반드시 모를지기 귀와 눈을 기울여 현묘한 법음(法音)을 들으며, 마음의 티끌을 깨끗이 하여 그 옥한 이치를 음미하다가 종사가 법당을 내려간 뒤에야 묵묵히 앉아 이치를 살펴야 한다.

- 초발심 지경문 -

악인은 침묵으로 대하라

아난다는 부처님의 얼굴빛이 오늘처럼 밝아지고 화평스러운 것을 일찍이 보지 못했다. 금빛처럼 빛나는 얼굴을 보고 그는 흠뻑 젖어 여쭙었다. “제가 부처님을 모신 지 이십여 년이 되었지만 오늘처럼 얼굴빛이 밝아지고 화평한 것을 일찍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다. “아난다여, 그것은 두 가지 인연으로 그러하다. 두 가지 인연이란 내가 바른 깨달음을 얻었을 때와 열반에 들 때이다. 내가 오늘 밤중에 열반에 들려고 해서 안색이 빛을 발한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아난다는 깜짝 놀라 여쭙는 바를 물었다. “어찌 그렇게 빨리 열반에 드시렵니까? 세상에 빛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존다에게 가서 격정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하여라.

여래에게 공양한 인연으로 좋은 과보를 받을 것이라고 위로해 주어라. 너도 잘 알아 두어라. 반드시 여래를 공경하고 교법을 배우고 섬겨야 한다.” 이 말씀을 듣고 아난다는 부처님께 여쭙었다. “찬다가 비구는 성미가

급하고 과격하여 욕지거리를 잘하고 말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열반하고 난 후에는 찬다가를 위해 대중들이 침묵을 지키고 그를 상대하여 말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그는 부끄러움을 느껴 자절로 위우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마치고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자리를 깔게 하셨다.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무릎을 굽혀 다리를 포개고 누워 성인의 바른 지혜를 생각하셨다.

- 정아함 반니원경 -

대중을 잘 섬기라

불자로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설법하는 사람(設法主)이 되거나, 법을 행하는 사람(行法主)이 되거나, 절 주인이 되거나, 교화하는 주인이 되거나 좌선하는 주인이 되거나 행태하는 주인(行來主)이 되거든, 마땅히 자비심으로 잘 화합시키며 삼보의 재산을 잘 지켜서 헛되이 쓰지 않기를 마치 자기의 것과 같이 해야 하거늘, 도리어 대중을 어지럽히며 교만한 마음으로 삼보의 재산을 낭비하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 범망경 -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



진리의 여율

셨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도 견고한 것도 없으며 결국은 모두 흩어지고 만다. 망상 분별로 하는 일은 속임이 될 뿐이다. 세속의 인연으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느냐. 천지와 저 큰 수미산도 결국은 무너질 것인데 이까지 사람 몸 따위겠느냐.

나는 석 달 후에 열반에 들 것이니 놀라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이 다 법으로 부처를 이룬 것이다. 이미 교법이 갖추어져 있으니 너희들도 부처리히 배워 실행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니고 해탈을 얻도록 하여라. 분별하는 작용이 끝나면 죽지도 않고 다시 나지도 않을 것이며, 다른 몸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다.

오온의 작용을 끊으며 배고프고 목 마르며 춥고 더우며 근심, 슬픔, 괴로움, 번민 같은 것도 없어진다.

사람이 바른 마음을 쓸 줄 알면 천신들도 기뻐할 것이다. 마음을 조복받아 부드럽고 순하고 스스로 텅 비어야 한다. 마음 가는대로 따라가서는 안된다.

마음 가는 대로 한다면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도를 얻는 것도 도한 마음이다.

마음이 하늘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며 귀신이나 축생 혹은 지옥도 만들므로 모든 것은 다 마음에 매인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따라 온갖 법이 일어

난다.

마음이 바탕이 되어 마음의 뜻하는 것이 행이 되고 행의 하는 일이 명이 되니, 어질고 여러식음이 행에 있고 오래 살고 일찍 죽음이 명에 달린 것이다.

대개 의지와 행과 명, 이 세가지가 서로 관계되어 좋고 나쁜 짓을 하므로 스스로 그 과보를 받는다. 아버가 착하지 못한 짓을 했더라도 자식이 대신 받지 못하고, 또 자식이 옳지 못한 일을 했을지라도 아버가 대신 받지 못한다. 착한 일은 스스로 복을 받고 나쁜 짓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여래가 천상 천하에서 높이 공경 받는 것도 그 뜻이 송고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른 마음으로 진리를 행동으로 옮겨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현세에서 휴식과 안락을 얻을 것이니, 잘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며 조용히 생각하여라.

그러면 곧 나의 깨끗한 법이 오래 머무를 것이며, 세상의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중생을 제도하여 편안케 하리라.”

- 정아함 반니원경 -

생각과 지혜의 차이

“존자여! 당신은 먼저 출가의 목적으로 삼는 최고선은 모든 세속적 집착을 벗어나

완전한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라곤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경지에 도달한 자는 죽은 후 다시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존자여!” “그러면 그와 같은 경지에는 무엇이 의하여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대왕이여!

그것은 생각과 지혜와 기타 선법에 의하여 도달할 수 있습니다.” “존자여!

말씀하신 생각과 지혜는 결국은 같은 것이 아닐까요?” “같지 않습니다. 대왕이여!

생각이란 마음의 광범한 분별 작용을 말하고, 지혜란 마음의 특수한 판 작용을 말합니다.

보통으로 분별하는 생각은 사람 이외의 동물, 이를테면 양이나 소, 말 따위에도 있지만 지혜는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과 지혜의 특징을 말씀해 보시지요.”

“대왕이여! 생각의 특징은 이해하는 것이요, 지혜의 특징은 재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대왕이여! 당신은 보리를 베는 사람을 아십니까?”

“알지요.” “그들은 보리를 어떻게 베니까?” “존자여! 그들은 왼손으로 보리포기를 움

켜쥐고 바른손의 낫으로 베어 내지요.”

“대왕이여! 출가하여 수도하는 사람도 마치 그와 같이 마음의 사악을 움켜쥐고 지혜로서 그것을 베어 버리는 것입니다.

대왕이여! 이와같이 생각의 특징은 이해하는 것이요, 지혜의 특징은 재단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랄 알았습니다, 존자여!” -니선비구경-

결림없이 살 줄 알아라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마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때 과감히 행동하라

병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루루 할 줄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와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 아니라

-법보장경-

천태종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 봉축 음악회'

구인사 대조사전에서 사부대중 1만여명 동참



천태종은 9월 3일 단양 구인사 대조사전 앞마당에서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 봉축 음악회'를 봉행했다. 천태종법음법패연구보존회 스님들의 작법시에 이어 1,000여명의 천태종 산하 사찰 합창단은 김만석 국립국악관현악단 상임 지휘자의 지휘로 2시간 동안 전체 15막으로 구성된 교성곡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를 합창했다. 또한 100여명으로 구성된 마하연·니르바나 관현악단이 협연해 환상적인 무대를 선사했다. 교성곡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는 박재천 씨가 대본을, 송정란 씨가 작사를, 고 이상규 씨가 작곡한 상월원각대조사의 일대기를 음악으로 완성한 불교 교성곡이다. 봉축 음악회에는 도용 중정예하, 윤덕 대중사를 비롯한 천태종 스님들과 대각종 만정종무원장, 원효종 향운 총무원장, 진각종 문화사회부장 덕정정사, 김학송(국회의원) 천태종 중앙신도회장, 김동성 단양군수, 김희수 충북도의회 의원, 정병조 금강대 총장, 이병두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 등 1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 봉축음악회에 동참했다. 천태종은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단양 구인사=김종열 기자

이웃종교는 내 종교를 비추는 거울이다

조계종 화쟁위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



조계종 화쟁위(위원장 도법스님)는 8월 23일시 템플스테이기념관에서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 - 21세기 아쇼카선언' 초안을 발표했다. 조계종 화쟁위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종교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불교 차원의 종교평화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개월 간 '불교인 선언' 작성 작업을 벌였다. 국내 개별 종단이 자체적인 종교평화

선언을 마련해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선언문의 초안 작성 작업에는 조계종 명법스님,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교수,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등이 참여, 15차례 검토회의를 거쳤다. 선언문 초안은 불교계 안팎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최종안을 완성 발표할 계획이다.

이 선언문은 '총론', '종교평화를 위한 불교인의 입장과 실천', '종교평화를 위한 불교인의 서원'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 부분에서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서 종교간 상호 존중과 상생할 수 있는 평화적 삶

의 방식을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에서 찾는다. 또한 기원전 3세기 인도의 아쇼카왕이 남긴 새김글을 통해 종교간 갈등상황에서 불교인들이 이웃종교를 진정한 이웃으로 생각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

'종교평화를 위한 불교인의 입장과 실천' 부분은 열린 진리관, 종교다양성의 존중, 전법과 전교의 원칙,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 활동, 평화를 통한 실천 등 구체적 기준과 지침을 담고 있다.

'종교평화를 위한 불교인의 서원'에선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이웃종교의 가르침도 소중하게 여기고 이웃종교인과 더불어 고통 받고 소외된 모든 생명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이 실려 있다.

조계종 화쟁위는 선언문 초안에 대한 불교계 안팎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최종안을 완성 발표할 계획이다. 템플스테이기념관=김종열 기자

바라밀지역아동센터 도서 및 아동 도서 후원 "다시 태어나면 동진 출가해 스님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교도로부터 무주상 보시

교과부불자회장에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 취임



200만원 상당의 책장과 도서로 작년에 새롭게 증축한 교실에 도서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책장과 진열된 도서들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교도들이 후원으로 이뤄져있습니다. 전래동화, 창작동화, 과학도서, 역사도서, 인물도서 등의 다양한 책들로, 독서지도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하고 있어 아이들의 문화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문화 공급자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의 책이, 어느 명사의 명언 한마디가 아이들의 영혼을 살찌우고 가슴을 진동케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양식을

지난 5월 23일 창립한 교육과학기술부불자회(회장 설동근)가 8월 25일 서울 광화문 골슬식당에서 창립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창립행사는 20여명의 교과부 불자회원과 하북동 공무원 불자연합회 회장, 감사원 김진해 사무총장, 보건복지부 이상인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설동근 교과부 불자회 회장은 "불교의 특성상 조용하고 드러내지 않게 활동하는 측면이 많았다. 그로인해 타종교에 비해 불자 공무원들의 활동이 저조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다는 비판도 많았다"며 "여러 부처의 불자들과 자주 모임을 갖고, 회원들의 신심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심부름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불련 회장 하북동 감사위원은 "설동근 차관이 오는 10월 공불련 회장으로 취임키로 했다. 공불련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길 것으로, 기대감이 크다"며 "공불련의 지방조직의 부재가 아쉬웠는데 교과부는



전국 각지에 부처가 있어 설동근 차관이 이를 잘 활용한다면 숨어있던 많은 불자 공무원들의 신행 활동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축하의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공무원불자회는 오는 10월 8일 제9교구본사 동화사에서 창립11주년 기념행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신임 설동근 회장 취임식 및 하북동 회장 이임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종열 기자

설동근 회장은 앞으로 계획으로 △각 부처간 네트워크 강화 △각 회장단 상시 모임 △어린 포교 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5일제 수업에 관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흥천사 주지 정법 스님,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 등과 상의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주말을 이용한 어린이 포교 방안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은 초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사회생활을 시작, 한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외항선을 타기도 했다. 성장 가도의 해운회사 CEO를 역임하고,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거쳐 교육과학부 제1차관에 임명된 임지전직인 교육가이다.

특히 원효성사의 45대손으로 한때 동진출가를 꿈꾸기도 했던 설차관은 부산광역시 불교신도회 회장을 역임 하는 등 신행활동에 앞장서는 대표적 불자이다. 김종열 기자

총지사 이지연 보살 '화성 국제 연극제' 출전

"할머니와 외계인"으로 거창 국제연극제 대상 수상도...

서울 총지사 이지연보살이 8월18일 화성국제연극제에서 "할머니는 외계인"이라는 작품으로 공연했다. 이지연 보살은 수원시 세류동 버드네 노인복지관이 운영하는 실버연극동아리 '슈퍼스타'의 단원으로 지난 4년간 연극 공연을 해왔다. 이지연 보살은 건강악화로 병원을 다니던 중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연극을 시작했다. 학창시절 학예회 연극 공연의 주연을 한번도 놓쳐 본 적이 없는 실력의 소유자 이지연, 그동안 자신의 재능을 숨기려 하고 싶었다.

기회가 찾아온 이상은 열정을 다해 연습에 매진했다. 그 결과 젊은이들도 하기 힘든 영어 연극 '백설공주'를 통해 그해 복지관 인기상을 단번에 거머쥐었다. 이번에 공연한 "할머니는 외계인"이라는 작품은 누구에게



나 소리 없이 찾아오는 치매를 주제로 한 연극이다. 이 작품을 통해 이지연 보살은 치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버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을 원숙한 연기로 선보였다. 나이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 이지연 보살은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살고 있다. 교도 여러분들도 자신의 취미와 꿈에 과감히 도전해 보라고 권한다. 김종열 기자

조상영식과 선망부모의 왕생성불을 서원합니다



영식천도 영험도량 "불교 총지종 수인사" 조상과 선망부모의 영위(靈位)를 수인사에 모십시오!

자손들의 재난소멸과 일체 서원성취를 위하여 생전(生前)에 본인의 명패를 득락전에 미리 봉안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고통의 사바세계를 떠나 즐거움이 가득찬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이고득락(離苦得樂)의 전당이 득락전입니다.

득락전에 조상·선망부모의 영위를 모시고 왕생성불을 발원하는 천도제 및 기제 불공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불교 총지종 수인사

경북 포항시 북구 덕산동 120-1 (전화:054-247-7613, FAX: 054-247-7615)

주교 지공 정사·지회심전수 합장

날마다 좋은날

충청·전라교구 워크샵을 다녀와서

청주 혜정사 서령 정사

8월 22일과 23일에 걸쳐서 1박2일 동안 전라북도 무주 일원에서 충청·전라교구 전·현직 승직자 워크샵을 개최했다. 현직 승직자 8명과 기로스승 3분 모두 참가하는 결원이 한분도 없는 그런 모임이었다.

출발하기 전 법무 교구장님의 일정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었는데, 이번 일정은 단순한 휴가의 개념이 아닌 토론 위주의 일정이 될 것이라는 말씀에 속으로 작은 긴장감이 났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도 휴가가 아닌 워크샵을 정한 것이다. 워크샵란 제목에 걸맞게, 열정적인 대 토론이 새벽 3시 30분 가까이 장시간 이어졌다.

당연히 토론의 전체적인 주제는 '중단발전과 교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었다. 긴 시간 동안 논의의 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토론의 결론까지는 아니지만 토론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과 나의 생각과 느낌을 짧게나마 적어보려 한다.

종무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승직자가 되기까지의 시간이 벌써 햇수로 8년이 되어간다. 처음 교무생활을 시작했을 때 들었던 몇 가지 이야기 중에 '중단이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답보상태나, 과도기나, 질풍노도의 시기나...' 하는 말들이었다.

문제는 처음 중단에 들어와서 들었던 그 말들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들리고,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안 생길수가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과도기나, 질풍노도의 시기나, 하면서 답보 상태만을 바라보면서 수수방관할 것인가?(충지종이란 불교 중단이 무슨 반항기의 청소년도 아니고) 답답한 마음 감출수 없다.

무거운 마음 가늘 길 없어 한 숨 절로 나오게 된다. 중단에 맨 처음 입문 했을 때 중단의 관계자 한 분이 내게 해 주셨던 말씀이 있었다. '초심을 잃지 말라. 그리하면 후에

큰 스승 될 것이다.'

사실 그때 그 말씀이 가슴 속 깊이 와 닿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 아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의 길이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란 생각이 든다.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의 열쇠는 처음 시작 할때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초심이란 모든 가능성에 대해 열려있는 마음이며, 아무 것도 없는 마음이 선심(禪心)이며, 이 선심을 실행하는 것이 초심(初

正道)의 첫 번째 "정경"이 있다.

흔히들 '본다'라고 하면 엉뚱한 곳이나 바깥을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눈의 구조상 위치가 자기 자신보다도 바깥을 보기 좋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말이다.

다른 그 무엇을 보고 다스리려고 하기 보다는 먼저 내 안을, 내 삶, 내 위치의 근원이 되는 '나'부터 제대로 보고자 할 때, 모든 매듭은 자연스럽게 술술 풀여지리라고 본다.

어떤 이는 말 할지도 모른다. 불자치고 그 누가 팔정도(八正道)의 첫 번째 "정경"이 있다. 흔히들 '본다'라고 하면 엉뚱한 곳이나 바깥을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눈의 구조상 위치가 자기 자신보다도 바깥을 보기 좋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말이다. 다른 그 무엇을 보고 다스리려고 하기 보다는 먼저 내 안을, 내 삶, 내 위치의 근원이 되는 '나'부터 제대로 보고자 할 때, 모든 매듭은 자연스럽게 술술 풀여지리라고 본다. 어떤 이는 말 할지도 모른다. 불자치고 그 누가 팔정도(八正道)의 첫 번째 "정경"이 있다.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보지 못해서 첫 단추를 잘못 채운 채 나머지 단추를 다 채운다 한들, 그 옷은 잘못 입은 옷이 되는 것이다. 결국 다시 단추를 다 풀어 내리고 원점에서 제대로 바로 보고 단추를 다시 채워 나가야 되는 것이다. 짧게 표현한 내용이었지만 추상적인 말이 아닌 절실한 것임을 알아서 중단의 모든 관계자 및 특히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승직자들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초에 충실하고 기본이 지켜질 때 만사형통 되리라 본다. 그것이 곧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중단발전의 가장 큰 밑거름이요 초석이 되리라 본다.

1박2일간의 일정동안 그 어떤 사소한 불협화음 없이 충청·전라교구 모든 승직자 분들의 단합된 모습에 먼저 감사드린다. 워크샵 내 화합을 강조하시면서 또한 충청·전라교구를 이끌고 발전시키려는 법무 교구장님의 지도력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총지화, 사흥화, 수증원 세분의 기로스승님 조언과 충고 지도편달에 두손 모아 고개 숙이며, 중단의 화합과 발전을 생각하며 마무리 하고자 한다.

음미나반배움



심)인 것이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얼 하고 있는가? 라는 첫 물음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초심을 지킬 수 있을 때 언제나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초심이란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 초심자의 마음을 말한다. 그것은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편견 없는 마음이다.

바로 이러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모든 것을 풀어가는 바른 태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초심을 잃지 않고 지켜가나,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다음은 바로 보는 것이라고 본다. 나무 터 나 자신부터 바로 보는 것이다.

불교의 가장 기본 수행법이며, 중요한 수행법인 고를 말하는 길이 이것임을 깨닫고 실천하려는 가르침으로 여덟 가지 바른 길인 팔정도(八

학생문예

남녀의 평등, 사회 발전을 위한 지름길이다



이석호

(동해중학교 3학년 3반)

며칠 전 항공과학 고등학교 홍보단이 우리 학교를 방문했다. 방문단은 우리들에게 그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 취업 현황, 특전 같은 것을 소개하며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나는 단 한 가지 궁금하게 있었다. 왜 전체 정원의 10%만이 여학생인지, 물론 항공고를 나온 학생들이 가지는 직업 특성상, 남자가 유리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차별을 두어 학생 선발을 하는 것이 과연 남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 아닐까. 문득 생각하게 되었다.

남녀의 평등,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며 실천해야 할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 우리 학교 포스터 그리기 대회의 주제 중 한가지로 '양성 평등'이 선정되는 것을 보면 양성 평등의 중요성에 대해 심각하게 된다. 단순히 포스터 그리기의 주제라기보다는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형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에 그렇다고 본다. 그렇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남녀의 평등에 어긋나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회의 이면을 조심스럽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러한 드러나지 않게 사회의 발전을 방해하는 남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양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불평등 요소를 짚어보고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사회적 차원의 노력과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총을 들고, 전차를 끌며, 전투기를 조종하여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진다. 이것은 대다수 남자의 몫이다. 총을 들어 매서운 눈으로 타격을 맞추고 전차를 몰아서 목표물을 명중시키며, 전투기를 조종하고 미사일을 정확한 곳에 꽂아 넣는 일, 이런 일을 하기에

여자보다 남자의 신체가 좀 더 적합하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적합하다는 말이 꼭 남자만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조금 간부 이상의 군인 대부분이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성급의 여군은 단 한 명이다. 남녀 불평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 하겠다. 더구나 남자의 적합한 신체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모습에서 두 가지의 편견이 나타난다. 첫째는 남자만이 국방의 의무를 책임지기에 적합하다는 것, 둘째는 적합하기 때문에 남자만이 국방의 의무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 과연 이러한 모습들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우리 사회는 과연 평등한가?

그러면 이러한 불평등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다시 말해 위의 두 가지 인식, 그리고 그러한 인식들을 바탕으로 한 국가 제도는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된 것이냐는 말이다.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인은 사람들의 잘못된 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 올바르게 발전된 사고를 할 수 있을까?

첫째, 개인은 사회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여자도 군인이 되어 충분히 용감하게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할 수 있고, 남자도 꽃을 다루는 일을 할 수 있듯이 직업에 남녀가 따로 없음을 꼭 알아야 한다. 물론 사회의 여러 곳에서 과거에는 생각하기 힘든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남녀의 평등 사회 건설의 주춧돌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모습을 긍정적으로 본다. 어쨌든, '이건 남자가 할 일, 이건 여자가 할 일'이라고 선을 긋는 태도는 당연히 버려야 할 것이다. 유연한 사고를 가지는 것, 양성평등을 위한 첫 걸음이라 하겠다.

둘째,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 볼 때, 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 만약에 이러한 차별이 존재할 경우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잘못된 판단을 고칠 수 있도록 사회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단순히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인위적인 조치를 통해 우대를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본다.

모든 구성원이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 주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 진정한 양성 평등의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기술과 가정을 둘 다 가르치는 것을 보면, '여자도 자전거를 고칠 수 있어야 하고, 남자도 펀치 조립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하겠다.

이제 21세기의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사회의 여러 불평등 요소는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개인은 고정관념을 버리고 다양하고, 유연하게 생각하며, 사회적으로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 남녀 평등의 사회를 위해 고정관념을 버리고 평등의 저울을 바르게 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불교상식

불공(佛供)

불교의 실천을 불공이라 합니다. 생황불교에 있어서는 '생활이 곧 불공'입니다. 우리들의 참된 생활 그 자체가 불공이라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가짐과 욕심 부리지 말고 웃으며 진언행(眞言行)과 더불어 마음속에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불공의 요체입니다.

불교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바라밀지역아동센터

바라밀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을 통합적으로 보호하여 질 높은 복지와 교육의 장으로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이용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아동, 차상위계층가정 아동,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일반가정

●프로그램

- 보호프로그램 : 방임아동보호, 생활지도, 위생지도, 급식지도
- 교육프로그램 : 학습(국어, 영어, 수학, 독서지도, 기초학습지도)
- 문화프로그램 : 캠프활동, 현장학습 및 문화 활동(영화, 연극, 뮤지컬)
- 복지프로그램 : 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
- 지역자원연계 : 결연후원, 지역 내 인적·물적 지원연결

●따뜻한 후원의 손길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바라밀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학습지원비 및 문화활동(견학 및 캠프)을 위한 후원을 해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바라밀지역아동센터의 후원자가 되시면 후원금에 대한 세금감면 및 연말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계좌 : 기업은행 094-059285-04-046 예금주 : 바라밀지역아동센터
• 후원문의 : 바라밀지역아동센터 센터장 김수경

주소 : 부산시 동래구 명륜2동 8-8 정각사 내 바라밀지역아동센터

전화 : 051)552-0705

팩스 : 051)552-0704

규제와 편견의 한계를 넘어선 여성들

나혜석(1896~1946)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나혜석'은 1896년 4월 18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신흥동에서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본관은 '나주'이고 호는 '정월'이다. 부친 '나기정'은 대한제국 때 경기도 관찰부 재판주사, 시흥군수를 지냈다. '나혜석'은 비교적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는 10살 때 집 근처의 삼일 여자학교에 입학했다. 이때부터 집안에 있는 것과 뒤떨어 화초들을 그려서 선생님께 보여 드려 그림 잘 그리는 학생으로 칭찬을 받았다. 이것이 훗날 본격적인 화가의 길로 들어서는데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1913년 진명 여자보통고등학교를 최우등의 성적으로 졸업했다. 둘째 오빠 나경석이 아버지를 설득하여 일본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 서양화과(유화과)에 입학하여 화가로서의 공부를 시작하였다. 도쿄유학 시절은 나혜석의 모든 생각과 인간관계와 그의 인생이 결정된 때이다.

유화를 공부 한 사람은 여성으로 첫 번째이며 남성까지 통틀어 4번째였다. 이때 오빠 나경석은 자신의 친구 최승구를 나혜석에게 소개 하였다.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으나 최승구가 폐렴으로 사망한 후에는 그의 인생관이 변하여 모든 희망을 예술에 걸었다.

1918년 귀국하여 함흥 영생중학교, 서울 정신 여자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했다. 민족의 독립문제에도 큰 관심을 가져 1919년 3.1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하고 3월 25일 이화학당 학생 만세 사건에 깊이 관여 함으로써 체포되어 5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는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외로웠던 차에 아버지와 주변에서 시집가라고 강한 압박을 해 왔다. 1920년 4월 드디어 6년 동안 꾸준히 구애를 해 왔던 변호사 김우영과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첫딸을 낳고 어머니의 길과 화가의 길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하였다

어머니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위기감이 정신적 긴장감을 높이면서 출산의 고통을 여성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표현 된 건 처음이었다. 아무도 드러내놓고 말 하지 않지만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겪는 감정과 고통들을 앞장서서 말 함으로서 다른 사람의 입을 열게 하는 역할을 했다.

1914년에 근대적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상적 부인]이란 글을 발표했고 동경 유학 생활의

친목회를 조직하고 [여자계]라는 잡지를 발간 하는 등 여권신장 활동을 벌였다. 이 잡지에 그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주제로 한 단편소설 [경희]를 발표하기도 했다. 1921년 7월 [신가정]지에 봉건적인 결혼제도와 정조관에 희생되는 여성의 비극을 그린 소설 <규원>을 발표했다. 이후에도 <정순>등의 여러 작품을 발표하여 소설가로도 많은 활동을 했다.

1921년 3월 경성일보사에서 유화 70점으로 최초의 개인 유화 전시를 개최 해서 대성황을 이루었다.

나혜석의 작품이 전람회 때 대성황을 이룬 것은 일본 유학을 다녀온 것, 수묵화가 아닌 유화인 것, 3.1 운동때 옥고를 치르고, 변호사인 김우영이 남편이라는 것 등이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작품이 전시 되는 이를 동안 5000여명의 관람객이 몰려 들었다. 그는 조선미술전람회 에서 1회에서 5회까지 입상했다.

1927년 6월 그는 어린 세 남매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남편 김우영과 함께 진정한 예술을 찾아서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다. 1년 9개월의 여행에서 원하던 그림을 싹쓸 보고 새로운 세계를 접하면서 인생관 예술관을 확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돌아와서 새로운 예술을 펼칠 겨를도 없이 파리에서 최린을 만나 연애한 것이 발미가 되어 이혼 하게 되었다. 결혼 생활 실패 후 화가로서의 삶에 더욱 매진한 나혜석은 1931년 제 10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정원>으로 특선하고 이 작품으로 일본에서도 입선 하였다.

그 후 개최된 미술전에서는 거듭 실패하고 아들 '선'이 폐렴으로 죽은 후 나혜석은 불교에 심취하게 되었다. 승려생활에 매력을 느껴 수덕사 아래 수덕여관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이 곳에서 김일엽을 만나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다. 다술사, 해인사에도 묵은 적 있고 마곡사 근처에 방을 얻어 머문 적도 있다.

불교에 심취 했으나 불교에 귀의 하지는 않았다. 이 후 서울로 올라와 한 때 청운양로원에 의탁하기도 하였다. 병든 몸으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서울에 나타났다가 냉대를 받고 자취를 감추는 생활을 반복했다.

1948년 12월 10일 향년 53세로 추운 겨울날 행려병자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죽음은 시립자제원의 의사에 의해 확인 되었다.

나혜석은 지금 시대에 태어 났으면 화가로 소설가로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보람 있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는 시대를 너무 많이 앞서 가는 삶을 살았던 여성이다.

(자료 : 여성사전서관)

불교설화 <59>

허공에 세운 계란

묘향산을 한달음에 내려온 한 스님이 있었다. 의발은 남루했지만 그 위엄은 천하를 압도하는 기풍을 지녔다.

축지법을 써서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를 지나 강원도 금강산 장안사로 향하는 그 스님은 사명대사.

서산대사와 도술을 겨루기 위해 가고 있었다. 서산보다 스물세 살이나 아래인 사명은 자신이 서산대사보다 술수가 아래라느니, 높다느니 하는 소문을 못들은 체했으나 풍문을 듣고 퍼지자 들연 실력을 겨루 보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신출귀몰한 서산대사의 실력을 모르는 터는 아니나 나의 묘기로 서산을 궁지에 몰아넣어 세상을 놀라게 해야지.』

사명의 마음은 다급했다. 서산대사가 있는 금강산 장안사 골짜기에 이르자 우거진 숲 사이로 흐르는 맑은 물소리는 천 년의 적막을 흔들며 요란했다.

사명당이 이 계곡을 오를 무렵 서산대사는 굴리던 염주를 멈추며 상좌를 불렀다.

『이 길로 산을 내려가 묘향산 사명대사를 마중하여라.』

상좌는 깜짝 놀랐다. 『장안사에 사명 스님이 오신다는 전갈이 없으셨는데요.』

『허허 골짜기를 내려가노라면 냇물이 거꾸로 흐르는 곳이 있네. 바로 거기에 사명대사가 오시고 있을 거네.』

서산대사는 앞을 휘히 내다보는 듯 말했다.

『냇물이 거꾸로 흐르다니.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로구나.』

상좌는 고개를 가웃거리며 절을 내렸다.

『정말 사명대사가 오시는 걸까. 아니면 서산대사가 나를 시험하려 한인가.』

평소에 없던 분부라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굴리면서 골짜기를 향해 내려가던 상좌는 우뚝 걸음을 멈췄다. 분명 냇물이 거슬러 흐르는 것이 아닌가. 고개를 들어 앞을 살피니 과연 저만치 웬 스님이 오고 있었다. 상좌는 그 스님 앞에 공손히 합장배례했다.

『스님, 스님께서 사명대사이시옵지요?』

『그렇소마는...』

『먼 길에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저는 서산대사의 분부 받고 대사님을 마중 나온 장안사 상좌이옵니다.』

『아니... 그래...』

『사명당은 내심 놀랬다.』

『서산대사가 어떻게 알고 마중까지 내보냈을까.』

마치 덤미를 잡힌 듯 아찔함을 느꼈다.

상좌는 앞장서서 걸었다. 소문만 들던 사명대사를 직접 모시게 되니 누구에겐가 자랑이라도 하곤픈 마음이었다.

이윽고 장안사에 이르렀다. 그때 법당문이 열렸다. 서산대사가 막 법당을 나서려는 찰나였다. 사명당은 인사할 틈도 주지 않고 공중에서 날아가던 참새 한 마리를 잡

기를 한달음에 오셨는데 어찌 문 밖에 나가 영접치 않겠소.』

모든 답이 끝난 듯 서산은 사명에게 어서 올라올 것을 권했다. 그러나 사명은 손에 참새를 쥐고 있는 터라 답을 듣고 싶었다.

『고맙소이다. 대사님, 이 참새는 어찌 되겠습니까?』

『불도를 닦는 분이 어찌 살생을 하겠습니까?』

서산은 거침없이 대답했다. 『당대 고승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됐다. 사명은 자기가 오게된 사유를 말하고 이번엔 도술로 겨루자고 제안했다.』

사명은 지고 온 붓집에서 바늘이 가득 담긴 그릇을 하나 꺼냈

삼킬 듯한 무서운 위세였다. 『사명대사, 과연 훌륭한 신술이오.』

이쯤 되면 서산대사도 굴복할 것 같아 사명은 내심 기뻐했다.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 헛기침을 했다.

『뭘요, 대사께선 아마 이 비를 멈추게 할 뿐 아니라 하늘로 되돌리시겠지요.』

『허어, 사명대사님이 미리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사명은 그만 말문이 막혔다. 서산은 좀 전의 사명처럼 합장한 채 하늘을 우러렸다. 숨막히는 순간이었다. 줄기차게 퍼붓던 비가 똑



◀ 사명대사 영정

▶ 서산대사 영정

아 쥐곤 첫 말문을 열었다. 『대사님, 내 손아귀에 있는 이 참새가 죽을까요, 살까요?』

사명의 손 안에 있는 새인지라 새가 죽고 사는 것은 사명당에게 달려 있었다.

이쪽도 저쪽도 택하기 어려운 그 질문 앞에 서산은 의연히 입을 열었다.

『허허 사명대사, 이 몸의 발이 지금 한 발은 법당 안에 있고, 한 발은 법당 밖에 나가 있는데 이 몸이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안으로 들겠습니까?』

이 또한 난처한 질문이었다. 안으로 든다고 하면 한 발을 마저 밖으로 내놓을 것이요, 밖으로 나갈 것이라 답하면 안으로 들 것이니. 잠시 생각해 잠긴 사명당은 멀리서 객이 오는데 밖으로 나오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판단했다.

『그야 밖으로 나오시겠지요.』

『과연 그렇소. 사명당이 그 먼

잠시 그릇 속의 바늘을 응시했다. 이게 웬일인가. 바늘은 먹음직한 국수로 변했다.

사명은 맛있게 먹으면서 서산에게도 권했다. 이를 지켜보던 서산 역시 국수를 먹었다. 그리곤 사명과는 달리 입에서 바늘을 뱉아 놓았다. 대단한 신술이었다.

사명은 다시 계란을 꺼내더니 한 줄로 끈게 쌓아 올렸다. 그러나 서산은 그 반대로 공중에서 계란을 쌓아 내려왔다. 사명당은 초조해졌다.

『아래서 위로 쌓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사명은 열세를 느꼈으나 한 번 더 겨루기로 했다. 사명당은 하늘을 우러렸다. 구름 한 점 없던 장안사 상공에 갑자기 먹장구름이 뒤덮이더니 천지를 흐드는 천둥번개와 함께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다.

『아래서 위로 쌓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사명은 열세를 느꼈으나 한 번 더 겨루기로 했다. 사명당은 하늘을 우러렸다. 구름 한 점 없던 장안사 상공에 갑자기 먹장구름이 뒤덮이더니 천지를 흐드는 천둥번개와 함께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다.

순식간에 땅 위의 모든 것을

러 올라갔다. 한참을 오르던 비는 눈부실 만큼 아름다운 새로 변하여 나르는 것이었다. 청명한 천지엔 새의 노래와 환희로 가득했다.

가슴 조이던 사명은 이 변화무쌍한 광경에 자기의 모자람을 깨달았다.

『대사님! 진작 알아받지 못했습니다. 과연 만천하의 스승이옵네. 부끄러운 몸이나 저를 제자로 삼아 법도에 이르도록 가르침을 내려 주옵소서.』

사명당은 눈물로써 제자되기를 간청했다. 서산대사도 마음이 흠족했다.

『진정 그러하시다면 나 또한 즐겁지 않을 수 없소. 그대같이 슬기로운 제자를 맞게 되니 더없이 기쁘구려.』

그들은 합장한 채 오래도록 부처님 앞에 서 있었다. 사명은 그 날부터 서산의 수제자로 용맹정진했다.

축 개교 44주년

원대한 꿈을 갖고 실력을 연마하는 총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교 훈 신 의
성 실
정 직
교 목 보리수

총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교무실 : 051-555-4458 / 행정실 : 051-556-0281 / 교장실 : 051-552-0011



'1700년 불교문화 어떻게 보전 할 것인가?'

불교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에 대한 대토론회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는 8월31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문화유산의 현주소와 보전 방안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성균관대학교 이상해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발제자로 유흥준(전 문화재청장, 명지대 미술사학과)교수가 나섰다. 토론은 범하스님(성보문화재연구원장),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김영애(다할미디어대표)가 참여했다.

불교문화의 역사적 흐름

유흥준 교수는 불교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의 문제를 종교적 대상물과 문화재적 유물로서의 관점이 섞여있다고 먼저 지적했다. 일반적인 문화재와는 달리 현재에도 계속 종교적 예배의 대상이자 공간인 불교문화재는 그 만큼 관리의 주체를 가리기가 힘들다. 한국 불교문화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면, 삼국부터 고려시대까지는 국가의 통치체제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전반이 불교문화라, 따로 구분 지을 필요가 없다. 조선에 들어 국가적 이념을 불교에서 성리학으로 바꾸면서 무자비한 폐불 정책이 시행된다. 파괴와 학대 속에서 위대한 문화유산은 거의 다 멸실되고, 석조 문화재만이 살아남았다. 그러다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겪으면서 불교는 다시 부활한다. 임진, 병자 양란이후 전국적 사찰들이 중창된다. 그런 면에서 서산대사, 사명당은 조선불교

중창조였다. 법주사 팔상전, 화엄사 각황전, 금산사 미륵전, 무량사 극락전 등이 이시기의 불사다. 현재 구복과 내세의 구원을 위해 사람들은 다시 사찰을 찾아오고, 엄청난 크기의 괘불이 조성되어 야단법석을 장식한다. 조선후기는 더 이상 유교국가가 아니었다.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가람의 배치, 즉 '산지 중정형'은 불교의 사원과 유교의 향교, 서원 형식이 결합되어 완성된다. 여기에서 자연과 조응하는 우리의 독특한 산사의 미학이 이루어진다. 또한 산신령, 칠성각 등 민중적 요소도 사찰 안으로 수용 조성된다. 조선후기의 국가 이념은 유교를 바탕으로 하지만, 민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신앙은 불교였다. 당시 불교는 종단이 존재하지 않았다. 때문에 과발도 없었다. 과발이란 힘이 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다. 일제 강점기로 들어서면서 일제는 우리 문화를 말살시키려는 작업으로 조선 불교를 일본의 입제종에 편입시키려 한다. 이러한 탄압에 맞서 민해 한운 스님 등이 조선불교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종단을 탄생시킨다. 결국 1911년 일제는 사찰령으로 30본산제도를 인정하고, 1924년엔 31본산제도가 확립된다. 그런 억압된 상황에서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제가 강제로 실시한 토지조사 때 불교는 기존의 사찰과 산문이 소유한 토지를 대장에 올려놓는다. 대찰의 경우 수십만, 수백만 평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조계종의 거대한 인프라가 된다. 해방이후 수차례의 법란과 내부 진통을 겪었지만 대중의 불교 인식이 확대되고, 민주화 과정에

서 불교계도 동참함으로써 사회적 발언과 영향력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제 불교는 또다시 전성기를 맞을 수 있는 절호의 호기를 맞는다.

중창과 복원 불사의 문제

불교문화유산 보전의 문제에서 요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찰건축과 중창불사이다.1980년대 까지도 조계종 사찰의 재정은 열악했다. 이런 상황이 198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달라진다. 사찰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대시주도 등장하면서 대대적인 불사가 일어난다. 이때 불교는 좋은 기회였지만, 오히려 사찰건축에 치명적인 변질과 상처를 입는다. 중창불사에 포클레인이 사용됨에 따라 삼사간에 형질이 변형되어 절집 마당은 연방장을 연상케 한다. 아기가기했던 절 마당이 허전하기 그지없는 밋밋한 마당으로 변했다. 이는 산사의 미학을 일그러뜨리는 일이다. 중창이나 복원이든 문화재 건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재와 재료이다. 우리 건축에 쓰는 소나무는 금강송인데 지금은 대부분 캐나다에서 수입한 더글라스퍼라는 소나무를 사용 한다. 이걸 짙게 칠 때 툄리지만 할뿐 우리 전통 건축의 깊은 질감을 보여 주지 못한다. 기와역시 마찬가지로 정형화 된 KS 규격의 기와를 사용, 프라스틱 기와를 올려 놓은 인상을 준다. 단청은 더하다. 이는 단청이 아니라 페인트칠을 하는 것이다. 모두가 비용의 문제와 관리 주체의 인식 부족이다. 불사의 개금 문제는 더 심각하다. 금빛의 번들거리는 개금에 스님들은 별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점이 참 이상하다. 9세기 하대 조성된 장흥보림사, 칠월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불상들은 아스콘을 뒤집어 쓰고, 요란한 금칠로 되어 있었다. 문화재청의 복원이 완료되자 우리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거룩하고 존엄한 불상이 그 모습을 찾았다. 작가 박완서 선생은 비록 천주교인이었지만 이 불상을 보고 절대자의 이미지를 보았다 한다. 또한 조경의 문제도 절집의 위치와 식생에 따라 장기적인 플랜에 입각, 시행해야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다. 폐사지 복원 문제는, 사찰을 복원 하는 것이 옳은냐?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옳은냐를 판단하는 것은 결

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폐사지를 보존하고, 인근에 새 절집을 짓는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백제 정립사지 복원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경주에 불국사가 복원되면서 신라 문화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유적이 된 것처럼, 백제의 불교문화를 보여 줄 수 있는 사찰로 복원, 백제불교의 단면이라도 보여 줘야 한다. 석조문화재의 산성비 피해 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상황을 도래할 수 있다. 무생물의 병리적 현상은 다 망가지 후에야 그 징후가 나타난다. 그렇다고 무조건 보호각 안에 가둘 것이냐? 이태영 박사는 오히려 보호각이 석조문화재의 수명을 단축하는

대한 대중의 인식도가 높아졌다. 이 또한 같은 프로그램의 반복보다는 불교적 인문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올레길, 둘레길도 불교적 이야기와 결합하면 무궁무진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요소로 본다. 어찌 보면 불교문화유산의 활용은 불교의 사회적 참여와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다. 한 예로 독도문제가 심각할 때 암자하나 지어 스님을 상주하자는 아이디어가 있었다. 이는 국제적 분쟁을 피하면서 실 효적 지배를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이다. 불교문화의 활용이 불교자체의 위상 정립뿐만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공헌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불

난으로부터 불교유물을 보호하기위해 정부의 지원과 사찰의 자체 부담으로 건립되었다. 몇 군데를 제외 하고는 절반이상의 박물관이 완공을 하고도 개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개관된 박물관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실정이다. 유흥준교수가 지적했듯이 박물관 운영에는 사람과 재정이 필수다. 그런데 전문학예적 한명도 두지 못하면서 박물관은 왜 건립했는지 되 물고 싶다. 또한 막대한 국가 예산과 삼보 재정을 낭비한데 대하여 어떤 답변을 내 놓아야한다. 또한 관련자는 어떤 책임을 질지 국민들에게 대답해야 할 때다 생각한다. 더 이상의 박물관 건립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정부와 종단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사찰 문화유산 보수와 현 실태에 대한 대안으로 "첫째, 문화재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늘려야 한다. 문화재 보수는 국가가 직영해야한다. 그래야 이익을 떠난 실질적인 보수가 이루어 질수 있다. 둘째로 연구, 교육 기관의 부재가 부실을 야기했다. 문화재연구소에 조차 한국건축과나 불교건축과가 별도로 없다. 이는 반드시 별도의 부서로 독립되어 연구와 조사 기능을 수행해야한다. 또한 중 앙승가대학에 건축, 공예, 회화 등의 학과 신설이 필요하다. 셋째로, 문화재 보수에 공사기간을 두는 것은 문화재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 하는 것이다.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이 있는 문화재 공사를 공사기간은 두지 않아야 한다. 넷째로 예산의 회계연도 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회계 연도내 예산 집행으로 재료의 구매 및 공사의 시기가 문화재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며 문화재 보수의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 했다.

김영애 다할미디어 대표는 불교문화유산의 활용방안에 대해 "디지털 시대의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 특히 전시 분야는 디지털 방식과 스토리텔링 기법의 도입을 고려해야한다. 살아있는 전시가 아니면 관람자의 시선을 끌 수 없다. 또한 문화유산의 복원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복원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일찍이 영국은 증강현실 기법을 사용하여 과거의 영국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웅장한 로마 문화 까지도 재현하려 한다. 지금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전자기기의 활용이 대세이다. 문화의 복원도 시대에 따라가야 한다."며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활용을 역설했다.



유흥준 명지대 교수

지름길이라 말한다. 자외선은 석조문화재 보존에 필수적인 영양소인바 이를 차단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할 수행해야할 과제이다.

불교문화재의 활용

불교문화재의 활용 문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성보 박물관의 문제를 들 수 있다. 1987년 통도사가 처음으로 성보 박물관을 열고, 전문적인 큐레이터와 전시시스템을 갖추고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보박물관은 재 기능을 하지 못한다.

박물관은 1. 유물, 2. 건물, 3. 사람, 4. 재정의 내가지 필수 구성요건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박물관의 정상적 운영이 힘들다. 불교계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해야한다. 최근 템플스테이가 자리를 잡으면서 불교에



범하스님 성보문화재연구원장

교는 유형문화재 복원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중의 아날로그인 불교의 문화는 현대인의 잃어버린 정신적 빈칸을 채울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다. 또한 우리 불교의 뿌리를 끊임없이 탐구, 발굴 정리하는 사업이 법률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중창불사에 마음을 쓰는 만큼 불교의 인문정신을 발굴하고 연구하며, 대중을 교화하는데 마음을 더 써야 한다. 문화적인 유산이 아무리 뛰어나도 해도 이어갈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무엇보다도 인재와 길러 소중 한 불교문화유산을 잘 보전하고 활용하기를 바란다.

반성 그리고 대안은

이어 토론에 나선 범하스님(성보문화재연구원장)은 성보박물관 문제에 대해 "1990년대 초부터 확산된 박물관은 현재 34개에 이른다. 화재와 도

전남영광 특별한 굴비의 맛 청수굴비



영광굴비의 유래

굴비(鰯非) ? 물고기 이름치고는 참 독특한 이름이죠. 이러한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데요. 고려 16대 예종 때 이자겸은 그의 딸 순덕을 비(妃)로 들여서 그 소생인 인종으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지요. 또한, 인종에게도 셋째딸과 넷째딸을 시집보내, 중복되는 인척관계를 맺고 이를 업고 권세를 독차지 하며 은근히 왕이 되려는 야심을 품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 뒤 최사진이 이자겸 일당인 척준경을 매수하여 체포한 후, 영광 법성포로 유배시켰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이 지역 특산물인 굴비를 먹게 되었고, 마침내 왕에게 칠산바다에서 잡은 조기를 소금에 절여서 진상하면서, 결국 자기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한 아부기가 아니고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굴비라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계좌번호 (예금주: 김장호)
농 협 : 643045-52-114021
광주은행 : 721-121-012900

제품종류

- 청수 1호 1.3kg / 20마리 / 12,000원
- 청수 2호 1.6kg / 20마리 / 25,000원
- 청수 3호 1.8kg / 20마리 / 35,000원
- 청수 4호 2.0kg / 20마리 / 60,000원
- 청수 5호 2.2kg / 20마리 / 80,000원
- 청수 6호 2.4kg / 20마리 / 100,000원
- 청수11호 1.2kg / 10마리(大) / 60,000원
- 청수12호 1.3kg / 10마리(大) / 80,000원
- 청수13호 1.4kg / 10마리(大) / 100,000원
- 청수14호 1.5kg / 10마리(大) / 150,000원
- 청수15호 1.7kg / 10마리(大) / 200,000원

- *택배비는 별도입니다
- *두드름 이상 주문 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청수4호부터 청수15호까지는 저희가 택배 부담합니다.

·제품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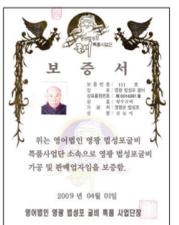
참조기만을 엄선하여 1년 이상 간수가 빠진 천일염을 사용하여 염장하여 염에서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 법성포 해풍에 말린 후 가장 맛있는 상태에서 냉동시킨 제품입니다. 습도가 5% 이하로 낮아지는 낮에는 해풍으로 건조되고 습도가 95% 이상 올라가는 밤에는 참조기 속속들이 들어있는 수분이 밖으로 뚫어져 나와 육질이 숙성되는 영광 굴비는 칠산바다에 접한 법성포의 기후적 여건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제품에 물기가 흐르는 것은 급속 냉동시킨 제품이 배송시 조금 녹아서 묻어 있는 것입니다. 제품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관방법

서늘하고 공기가 잘 통하는 그늘진 곳에 걸어두면 변질되지 않지만 오래두면 배에서 기름기가 배어나와 맛이 변하므로 급속적 녹지 않은 상태에서 끈을 제거하고 랩으로 2~4마리씩 사서 냉동 보관하다가 1봉씩 꺼내드시면 변질되지 않으며 본래의 맛이 오래도록 유지 됩니다.

·요리방법

생선 굽는 그릴에 중간불에 서서히 구워야 제 맛이 납니다. 갖은 양념을 바른 후 찌거나, 매운탕을 하셔도 맛있습니다.



※ 제조원 청수굴비는 영여법인 영광굴비 특목사업단 회원업체입니다. 신선한 제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포장상태는 조금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청수굴비는 법수원 기로스승의 자제 이은주 보살이 운영합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대덕리 564-4
사업자 등록 번호 : 410-97-06370 · 대표자 : 김동식
상담 및 문의 TEL : 061-356-2466 FAX : 061-356-2468 H P : 010-5325-8824

풍경소리

길에서 만난 두 왕



옛날, 어느 왕이 마차를 타고 암행을 하다 좁은 시골길에서 다른 마차와 마주쳤다. 암행 중임을 깜박 잊은 왕은 당연히 상대방이 비켜나기를 기다리며, 얼른 양보하지 않는 앞 사람에게 따지듯 물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왕이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너도 왕이라면 어느 나라를 다스리느냐?”
“나는 내 자신을 다스리는 왕이다.”
“.....!”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보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자가 더 훌륭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나에게 손짓하는 세상, 오늘도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서 쉽게 비켜서지 맙시다.

이정우(군승법사)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것

재산이나 용모가 나보다 나은 사람 앞에선 초라해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선 우쭐해지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가진 것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느끼는 것은 내 마음을 남에게 빼앗긴 채 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잘 돌아보세요. 자기의 행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리도현 (재가수행자)



내용참조: "불교총정" 458P 참조

이달의 사진 해바라기는 가을을 품고...



한국불교 사진협회 경남지부 김인규 지부장 사진제공

제9회 경로법회

제9회 총지중 경로법회에 어르신들을 초대합니다. 경로 효친의 자비행을 실천하기 위한 이번법회에는 장기자랑, 야외법회, 레크레이션, 신행 체험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 참가대상 : 65세이상 어르신
- ◆ 일 시 : 총기 40년 9월 21일(수) ~ 22일(목)
- ◆ 장 소 : 전북 변산 대명리조트
- ◆ 준 비 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3 전승 02)552-1082 //www.chongji.or.kr

만해축전 특집

만해선사 그가 꿈꾸던 세상은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평화와 평등이 뿌리내린 세상이다



만해축전을 맞아 만해 한용운선사의 치열했던 삶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승려로서, 독립운동가로서, 문필가로서 살다간 선사의 삶은 오늘날 불자들에게 큰 가르침을 남기고 있다.

만해선사는 열강의 침탈 앞에 조선왕조의 국운이 다한 1879년에 충남홍성에서 청주 한씨 응준 거사와 온양 방씨 사이의 둘째로 태어났다. 어려서 한학을 익혀 '서상기'를 독파하고 '통감', '서경', '기백삼주'를 통달한 총명함으로 일대의 자량이었다. 14살 때 당시 조흔 풍습에 따라 천안 전씨 정수와 혼인한다. 18세에 고향 서당의 훈장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편 서세동점하던 국제정세 속에서 국운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왕조의 비참함을 지켜보다 의병활동에 참가한다. 하지만 그의 노력과는 달리 의병에 실패하고, 무작정 고향을 떠나 한양으로 향한다.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일꾼의 노자도 없이 떠난 선사는 노행 중에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은 통찰을 한다. 앞날을 위해 실력을 양성해야겠다는 생각과 인생의 의미에 대한 물음으로 길을 돌려 보는 속리사로 향한다. 선사는 다시 더 깊은 심산유곡의 대찰을 찾아 설악산 백담사로 입산한다. 이곳에서 선사는 탁발승이 되어 불도를 닦기 시작했다. 청춘의 몸을 한갓 도포 자락에 감싸고, 열

불을 외우며 현세를 초탈한 삶을 살았지만, 세상에 대한 의구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어느날 선사는 '영환지락'이라는 책을 통해 넓은 세상을 보고자하는 마음을 키워나갔다. 21살 되던해 선사는 세상의 견문을 넓히고자 원산에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한다. 하지만 동행의 음모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구사일생으로 귀국한다. 이후 안변 석왕사에서 참선하며 유랑생활을 한다. 고향으로 돌아와서의 생활도 잠시, 다시 행랑을 꾸려 백담사로 돌아간다. 27살 되던해 정월 선사는 금련곡사를 계사로 용운이라는 법명을 받고 득도한다. 그로부터 3년간 선사는 두문불출 불경과 참선에 빠져 수행정진한다. 하지만 좁은 세상에 갇혀있었다는 것이 사내 대장부의 본기가 아니라 생각하고, 일본으로 탐방을 떠난다. 이 시기 선사는 조동종 대학에서 청강하며, 일본어와 불교학을 배운다. 이때 유학생으로 일본에 와있던

최린, 고원훈, 채기두 등과 교류한다. 선사는 귀국과 동시에 박한영, 전금과 등과 결의를 맺는다. 선사는 승려로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위해 이시기 표훈사와 경기도 장단군 화산사숙의 불교강사를 지낸다. 그후 선사는 백담사에서 '조선불교유신론'을 탈고한다.

당시 일제는 조선의 불교를 일본 입재종에 편입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이를 간파한 선사는 박한영, 장금봉등과 불교종무원을 창설하고 일제의 음모로부터 조선의 불교를 지켜낸다. 1913년 35세때의 일이다. 이때 백담사에

최리도 바라던 해방을 한해 앞두고 사바세계와의 인연을 다하고 입적한다. 미아리 화장장에서 다비를 마친 후 망우리 공동묘역에 안치된 선사는 한 생을 불교와 민족독립을 위해서 산 위대한 선각자였다. 특히 선사의 업적은 불교 개혁에서 두드러진다. 『조선불교유신론』에서 산중불교, 승려중심의 불교를 도회지불교, 대중불교로의 전환을 역설하였다. 그의 의점은 현재의 불교계가 다시 되새겨야 할 중요한 대목이다. 한편 선사의 뛰어난 문학성은 『님의 침묵』을 통하여 근대 한국문학의 큰 획을 그었다. '님'이라는 대상의 보편성을 통하여 민족정서의 확대와 정한을 구체화 하였던 것이다.



서 탈고한 '조선불교유신론'이 책으로 간행된다. 이듬해 선사는 불교운동으로 일제의 감시를 받는 몸이라 그 활동이 자유로울 수 없었다. 선사는 이 또한 시절 운이라 생각하고 통도사로 내려가 대장경 연구에 몰두, '불교대전'을 간행하고 서울로 올라와 조선불교회 회장에 취임한다. 1917년 12월에 설악산 오세암에서 참선종 진리를 깨치고, 오도송을 부르짖는다. 이후 선사는 불교간지 '유신'을 창간하고 논설, 수필, 현대시 등 다양한 장르의 글들을 발표한다.

최법술 등과 조선불교청년회를 확대 개편한 '조선불교 총동맹'을 발족시킨다. 불교지를 인수하여 사장으로 취임하는 등, 불교와 문학, 독립운동으로 치열한 삶을 살았다. 1933년 선사는 여러 지인들의 도움으로 성북동에 심우장을 짓는다. 총독부 쪽을 보기 싫다는 이유로 북향으로 지은 심우장은 선사의 마지막 수행처가 된다. 선사는 이곳에서 많은 문인, 독립운동가, 스님들과 교류하며 조선 독립의 그날만을 생각했다. 선사는



1919년 3.1 운동은 선사의 삶에 있어서 큰 분수령이 된다.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육당이 작성한 기미독립선언서의 지구 수정 및 공약3장을 첨가한다. 또한 33인의 대표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일제에 체포되어 투옥된다. 옥중에서도 그의 독립운동은 계속된다. 참회서 한 장만 쓰면 석방해 주겠다는 유혹을 단호히 뿌리



시대에 대한 아련한 기억들

'조국, 비록 아무것도 없었지만'

- 주명덕 사진전

"문명(文明), 풍요, 공해 같은 개념과 상관없는 내 나라가 지닌 고유한 전통과 특색을 보존하고 싶다.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나의 아들 정일(正逸)이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싶다. 우리 겨레가 마음 깊이 지니고 있는 마음속의 풍요로운 조국을 나의 사진을 통해서라도 그대로 전해주고 싶을 뿐이다." (주명덕, 1981)

우리나라의 전통적 삶의 환경과 공간을 테마로 사진을 해온 작가 주명덕이 자신의 작업 목적을 밝힌 글의 일부이다. 이 글에서 주명덕은 1960-70년대 경제 성장과 개발의 논리에 밀려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적인 가옥과 건축, 지역적 조건을 테마로 사진 기록 작업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작가에게 조국(祖國, Motherland)은 어머니의 고향이고 아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가치이자 미학이었다. 조국의 원형을 사진으로 기록해 미적 가치를 더하고 문화의 유산으로 남기는 일은 사진가인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작업의 화두이자 테마인 것이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왜곡된 한국의 역사와 6.25를 통해 폐허로 변해 버린 환경, 산업화 과정 속에서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에 대해 느꼈던 비애감은 조국의 공간이 더 많이 사라지기 이전에 기록해야 한다는 당위로 작가를 이끌었다.

그리고 무작위적으로 추출한 특정 대상이 아닌 한국의 공간을 체계적으로 재구축하기 위해 대상을 선별하는 데에 관심을 집중했다. 그런 결과로 근대사의 질곡 속에서 피폐해지고 사라져간 한국의 전통 공간은 주명덕의 사진을 통해 체계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었다.

전통에 대한 존중을 말하기는 쉽지만 현실 속에서 전통을 고수하며 살아가기는 쉽지 않다. 전통적인 주거 공간은 그의 사진을 통해 아름답게 기록, 보존될 수 있지만 그 공간들은 도시화되어가는 현대적 공간과 같이 갈 수 없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현실이다.

편의를 추구하는 현대적 생활과 서구문화가 던져준 달콤한 실용주의 속에서 전통의 공간은 향수로만 남아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공간은 비록 실생활에서는 불편하더라도 우리의 전통적인 미의식 속에서는 여전히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을 복원하는 것이 주명덕 사진의 목적이며, 도달점이다. 이번 전시는 주명덕의 한국 전통 공간에 대한 미의식과 기록에 대한 신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다.

문의 : 대림미술관 전화 02-720-0667, 입장료 성인 5천원

진리의세계, 불보살의 세계

만다라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사진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태장계 만다라>

'대일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대자대비이신 부처님의 마음을 모태에 비유하고 그 모태안에서 인간의 불성을 성장시켜 나가는 활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태장계 만다라는 중앙의 중대팔엽원을 중심으로 12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제천, 신등 모두 414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금강계 만다라>

'금강정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중생의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금강계 만다라는 중앙의 성신회를 중심으로 9개의 작은 만다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제천, 현겁천불등 모두 1,461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 ※ 구성표
- ▲ 태장계만다라, 금강계만다라 set 33cm×33cm(액자포함) (30,000원)
- ▲ 가정다라니 46cm×27cm(액자포함) (27,000원)

The 5th World Lay Buddhist Forum 2011

제5차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Monasticism and Lay buddhism

승단불교와 재가불교

- 재가불교와 승단불교의 근본적 차이
 - 승단불교 전통의 장단점
 - 재가 전통의 장단점
- 재가불교 교단 형성의 역사적 배경
 - 승단전통 내 재가자의 역할
 - 승단불교 전통의 미래
 - 재가불교의 미래
- 승속을 초월한 생활불교의 확대 방안

2011년 10월 27일(목) ~ 30일(일)

장소: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룸(올림픽공원)

경희대학교 오비스홀

문의: 02)508-8933, 552-1080~3

주관: 불교총지종,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최: 불교총지종 중앙교육원, 경희대 비폭력연구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선센터